

전발연 2007 정책연구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효율적 운영방안
-전북도민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2007. 05.



연구진

연구책임 안완기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1장 조사·연구·분석의 개요

제1절 조사·연구·분석의 목적 및 내용

1. 조사·연구·분석의 목적

본 조사·분석은 전북 일반도민, 전문가 집단 및 전라북도 행정공무원과 도·시·군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생각과 의식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조사·연구·분석 내용

- 2.1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조사·분석
- 2.2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에 대한 도민의 평가 수렴·분석
- 2.3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 조정 방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분석
- 2.4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 운영 주체 이전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분석
- 2.5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의 적정성 모색
- 2.6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 심사위원의 구성 방안 모색

3. 조사·연구·분석 기간 : 2007년 2월~5월

제2절 조사연구·분석 방법 및 기대효과

1. 조례 및 법 등에 대한 문헌 연구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에 대한 내용과 조례 시행에 변화를 초래한 선거법을 연구 수행의 기본 연구 조건으로 전제한다.

2. 조사·분석 방법

본 조사·분석에서 논의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는 이미 기존에 실시해 온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에 대한 실시 현황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반 도민, 전북출신 전문가 집단, 도와 14개 시·군의 일반 행정공무원 및 전라북도·시·군의회 의원의 견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 설계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2.1 조사 설계(혹은 실행 조사 방법)

2.1.1 ARS 조사 : 2007년 3월 20일 ~ 3월 23일

2.1.2 E-mail 조사 : 2007년 3월 10일 ~ 3월 30일

2.1.3 우편 및 직접 조사 : 2007년 3월 15일 ~ 4월 27일

2.2 자료 처리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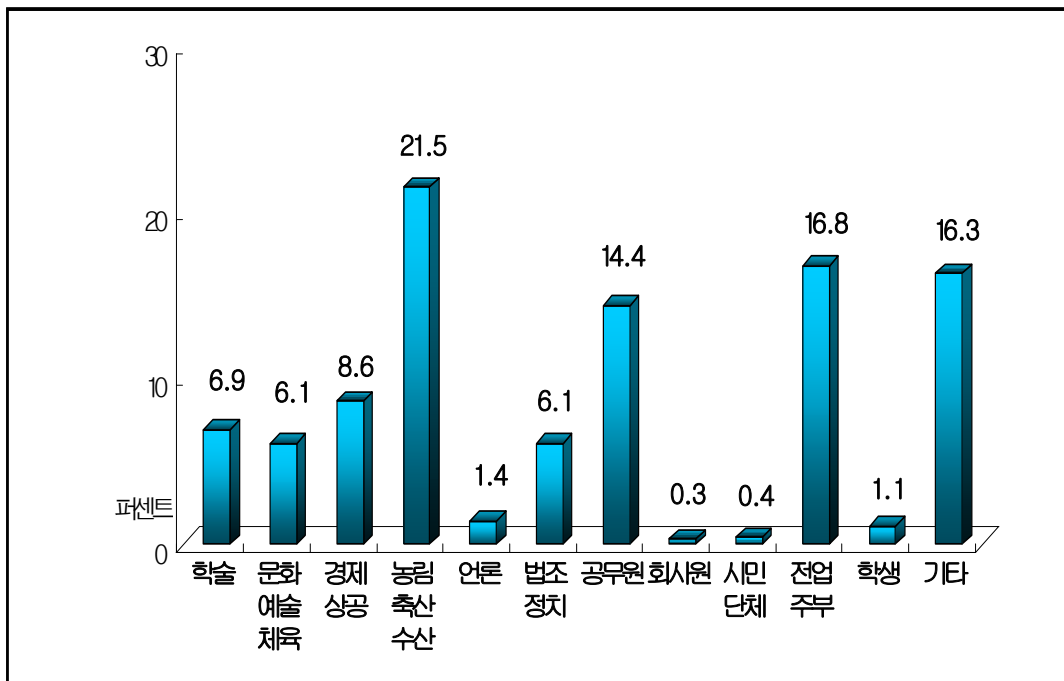
- ▶ 수집된 자료는 누락처리 여부를 사전 검토한 후 코딩을 통해 통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처리하였다. 먼저 기본 변수에 대한 빈도분석을 구하고, 제 변수와 인지도 및 직업 간의 교차분석을 실행하였다.
- ▶ 특히, 주요 교차분석 처리는 다음 두 경우에만 통계 처리 제시
 - 계산된 카이제곱(χ^2) 값이 카이제곱 분포표상 해당 자유도(df)의 기준이 된 카이제곱 값보다 큰 경우
 - 혹은, 유의수준의 수치가 0.05보다 작은 경우만을 통계 분석 대상으로 처리

2.3 응답 유효 표본의 구성

<표 1-1> 포괄적 대상 분류에 의한 유효 표본의 결과

구 분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 적 퍼센트
유효	일반도민	2,093	70.4	70.4	70.4
	전문가	277	9.3	9.3	79.7
	행정 공무원	450	15.1	15.1	94.9
	도·시·군의원	152	5.1	5.1	100.0
	합 계	2,972	100.0	100.0	

- ▶ 유효 표본 2,972명을 세부 직업별로 분류한 유효 표본 결과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세부 직업별 유효 표본 조사 결과

3. 주요 조사·연구·분석 범위 및 내용

- ▶ 본 연구가 추구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이하 대상)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지는 조사·연구·분석의 범위 내지 내용은 크게 다음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9개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표 1-2> 주요 조사 내용

주요 조사 내용 내지 분석 변수
▶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에 대한 인지도
▶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대표성에 대한 견해
▶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 분야에 대한 견해
▶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견해
▶ 향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주체에 대한 견해
▶ 향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견해
▶ 향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의 수에 대한 견해
▶ 향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한 견해
▶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

4. 연구 기대효과

- ▶ 본 연구를 통해 기 진행되어 온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상의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한 위상 정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 ▶ 여론 조사를 통해 본 상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던 도민들에게 본 대상에 대한 인지경로를 구축할 수 있는 홍보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연구결과 등을 통해 도민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 ▶ 특히,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민선4기 도정이 고객인 도민 중심의 행정을 실시하고 있음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제2장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추진 개요

- 시상일자 : 매년 10월 25일
- 장 소 : 도민의 날 기념식장
- 내 용 : 자랑스런 전북인대상(패) 및 메달
- 시상분야 : 10개 분야 - 경제, 문화·예술, 학술, 상공업, 농림수산, 공익, 체육, 효열, 근로, 언론
- 수상자격
 - ▶ 후보자 추천 일을 기준으로 전라북도에서 5년 이상 거주하거나, 본적(원적)이 전북인인자로서 해당 분야의 공적이 있는 자
- 수상후보자 추천 및 제출서류
 - ▶ 추천자 : 도민 누구나 추천, 도내 각 기관·단체, 기업체장도 추천
 - ▶ 제출서류 : 추천서·공적조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 접수기간 : 7 ~ 8월말 ('06년도의 경우 : 8. 1 ~ 8. 31)
 - ▶ 접수처 : 도 및 시·군
- 수상자 선발
 - ▶ 분야별 심사위원회와 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야별 1명씩 선발
- 심사방법 : 2계층제 (본 심사 및 분야별 심사)
 - 본 심 사 : 분야별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 심사 수상자 최종결정
 - ※ 심사위원 15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 : 도지사)
 - 분야별심사 : 각 분야별 예비심사 후 본심사위원회에 추천 (무추천 가능)
 - ※ 심사위원 7인 이내 실·국장 주관 구성 (위원장 : 위원중 호선)
- 시 상 : 분야별 상패 및 메달 수여
 - ※ '05. 8. 4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부상(500만원) 수여 불가

□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추진 경과 및 조례 제정경위

○ 추진 경과

- ▶ '95년도까지 애향도민의 장, 전북문화상, 영광의 얼굴, 산업발전대상, 농림어업대상 등 5개 형태로 30개분야 시상
- ▶ '96년도에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으로 통합하여 문화예술, 학술언론, 산업, 공익, 체육, 효열 등 6개분야 시상
- ▶ '97년 12월 『근로분야』 신설 : 7개분야
- ▶ '03년 1월 『산업분야』 분리 : 『상공업』과 『농림수산』으로 분리 8개분야
- ▶ '06년 3월 『학술언론분야』 분리 : 『학술』과 『언론』으로 분리 9개분야
- ▶ '06년 10월 『경제분야』 신설 : 10개분야
- ▶ '06년 현재 수상자 : 70명

○ 조례 제정경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으로 통·폐합 경위

- ▶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안 마련 의회상정
 - 제121회 임시회('96. 8. 12~8. 19)→산업·공익·문화체육·효열 등 4개
- ▶ 내무위 간담회 : 2회('96. 8. 5, 8. 16)
 - 문화체육부문을 3개 부문으로 분리 : 문화예술, 학술언론, 체육
- ▶ 도의회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96. 8. 19) ⇒ '96. 8.29 조례공포
 - 문화예술, 학술언론, 산업, 공익, 체육, 효열 등 6개부문
 - 상금 500만원
- ▶ 의원발의 근로부문 신설 ⇒ '97. 11. 21 조례공포
 - 문화예술, 학술언론, 산업, 공익, 체육, 효열, 근로
- ▶ 산업부문을 상공업부문, 농림수산부문으로 분리 ⇒ '03. 1. 3 조례공포
 - 문화예술, 학술·언론, 상공업, 농림수산, 공익, 체육, 효열, 근로

□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 문제점

- ▶ 부상 수여 불가로 후보자 추천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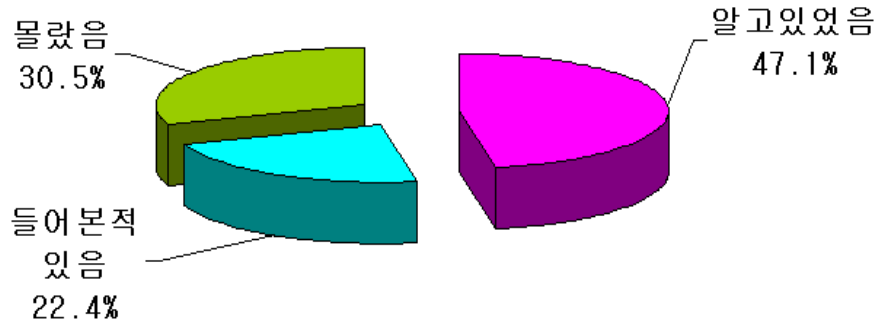
※ 접수현황

구분	계	경제	문화 예술	학술 (언론)	상공 업	농림 수산	공익	체육	효열	근로	언론
2006	55	4	9	5	1	6	18	4	2	5	1
2005	70	-	7	6	5	6	32	3	9	2	-
2004	89	-	14	6	7	6	34	7	9	6	-

- ▶ 민간보조사업 전환 시 시상금 지급은 가능하나 도지사 명의 및 공동 명의 표창 불가
 - 민간명의 표창시 “道 최고의 상”으로서의 위상 저하 우려
- ▶ 수상 분야 세분화 및 과다로 분야 중복 논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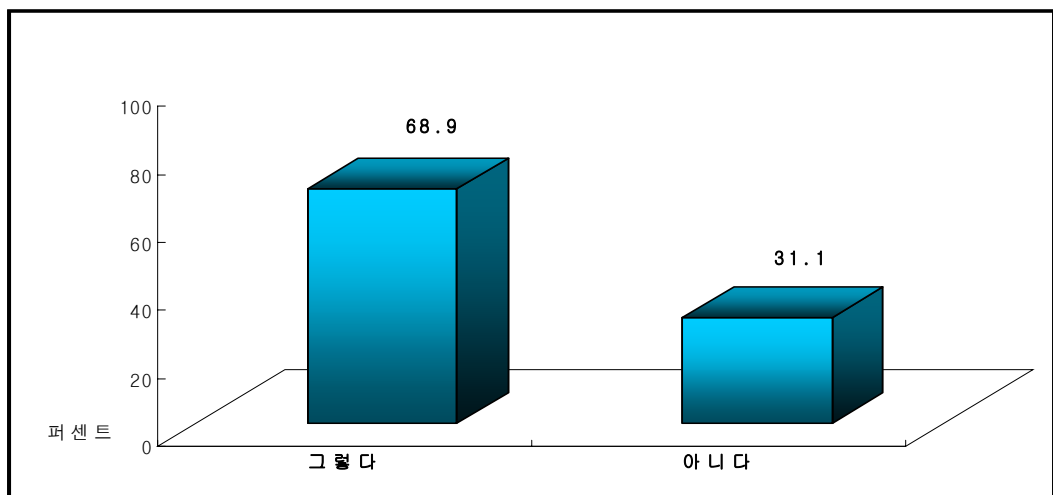
제3장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조사분석 결과

□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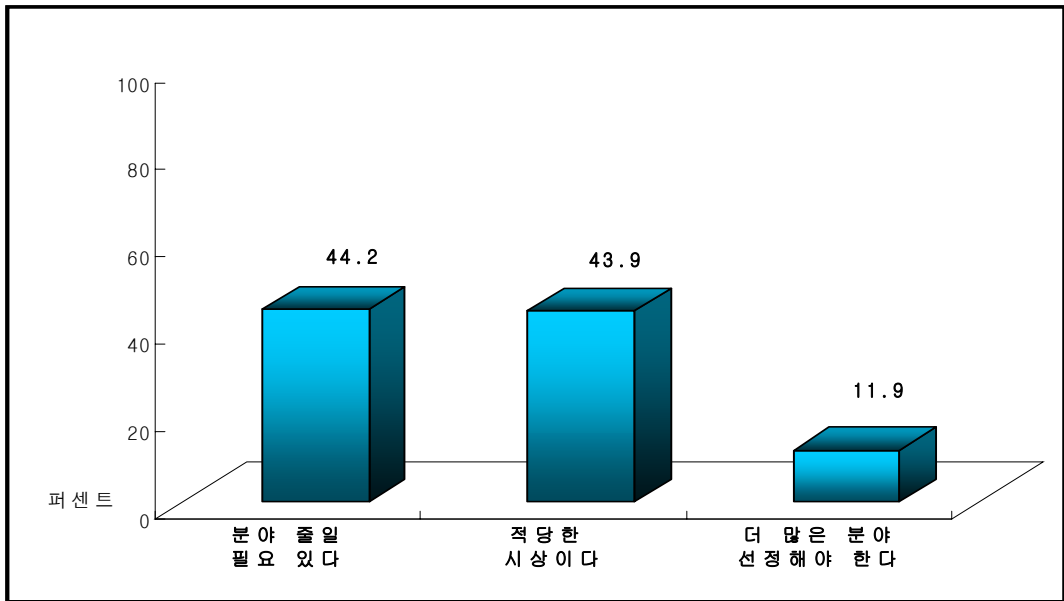
<그림 3-1>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에 대한 인지도

□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대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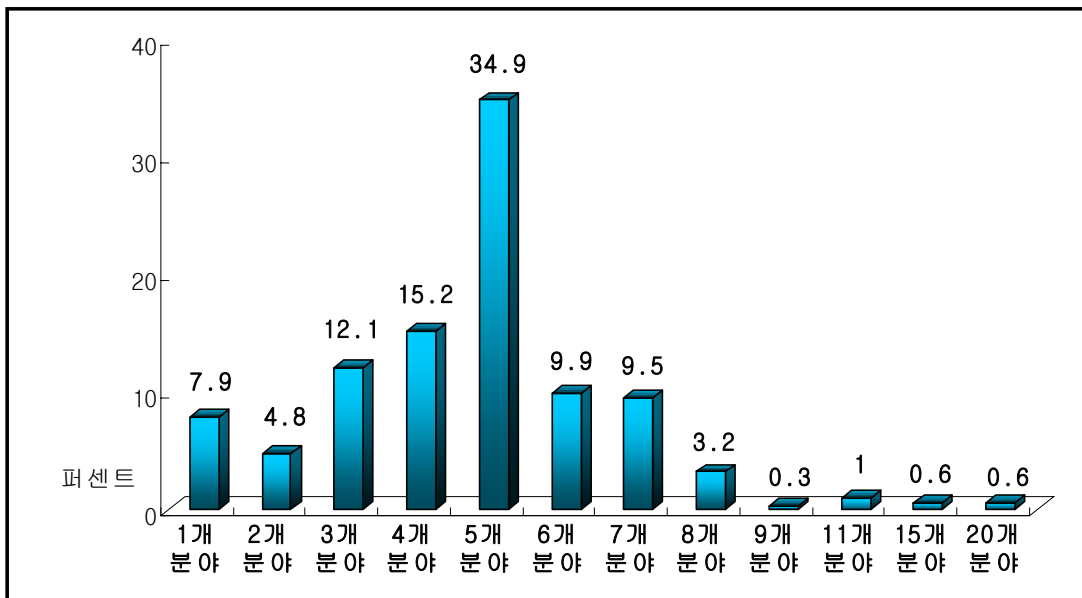
<그림 3-2>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대표성에 대한 견해

□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 분야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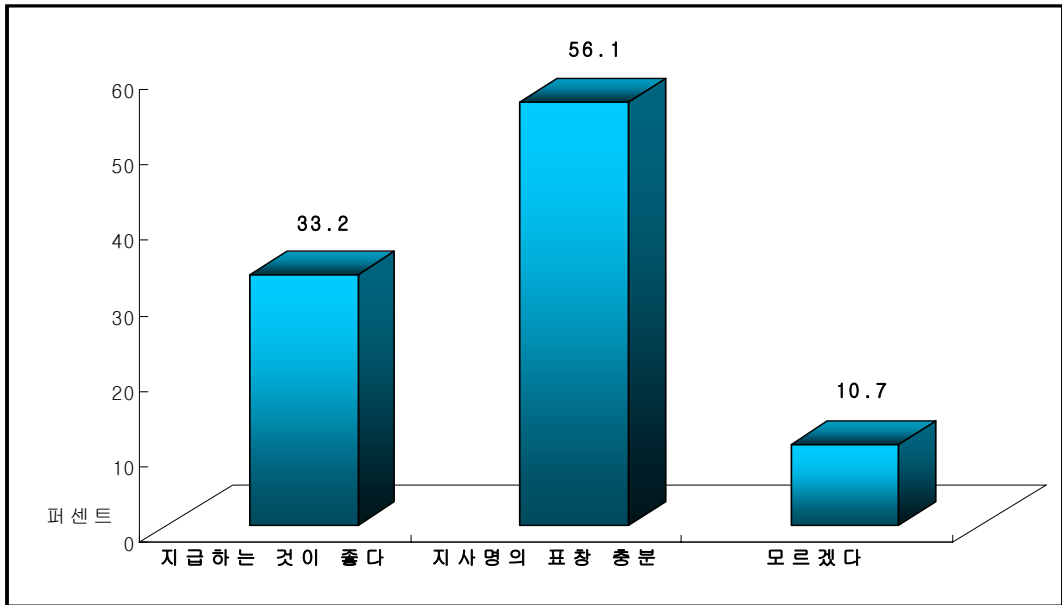
<그림 3-3>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장 분야의 증감에 대한 견해

□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걱정 시장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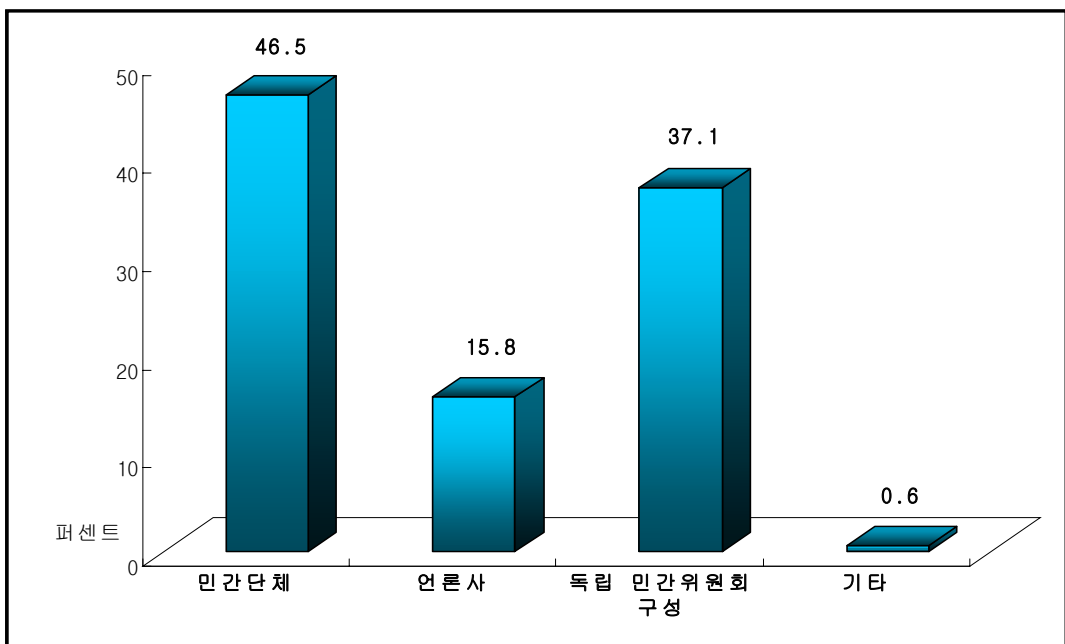
<그림 3-4>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걱정 시장 분야에 대한 견해

□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 지급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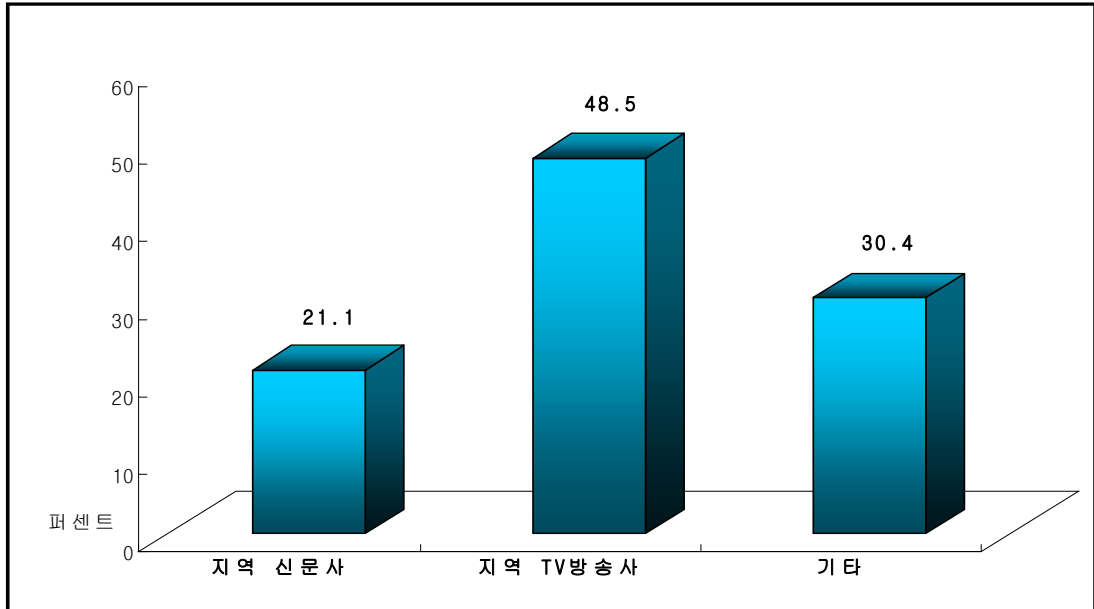
<그림 3-5>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 지급 유무에 대한 견해

□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운영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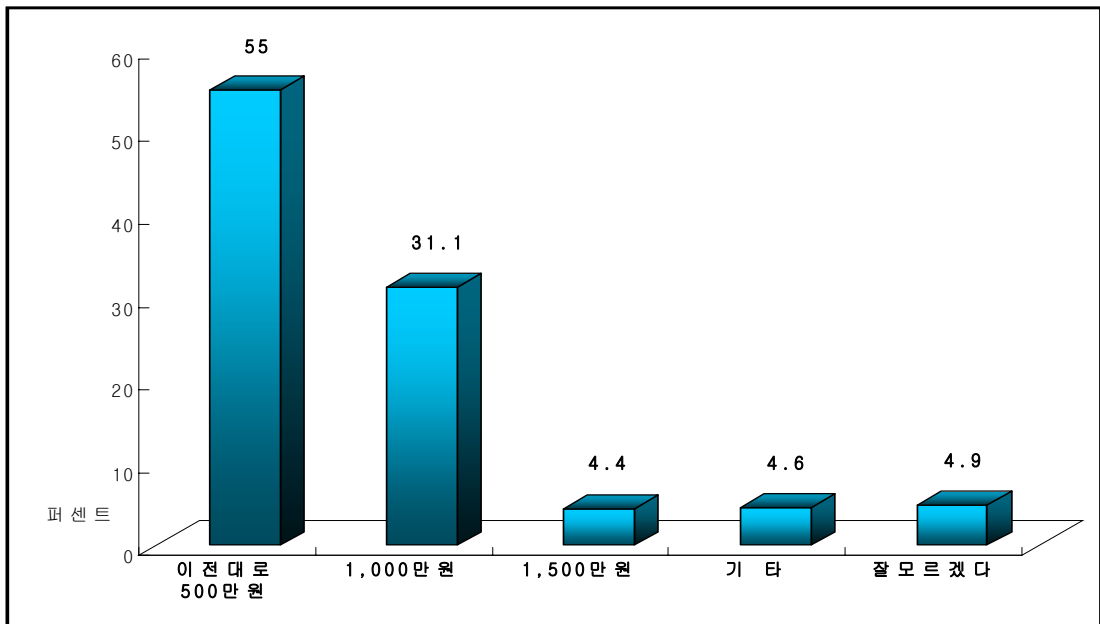
<그림 3-6>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주체를 전라북도 외로 할 경우에 대한 견해

□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주체를 언론기관으로 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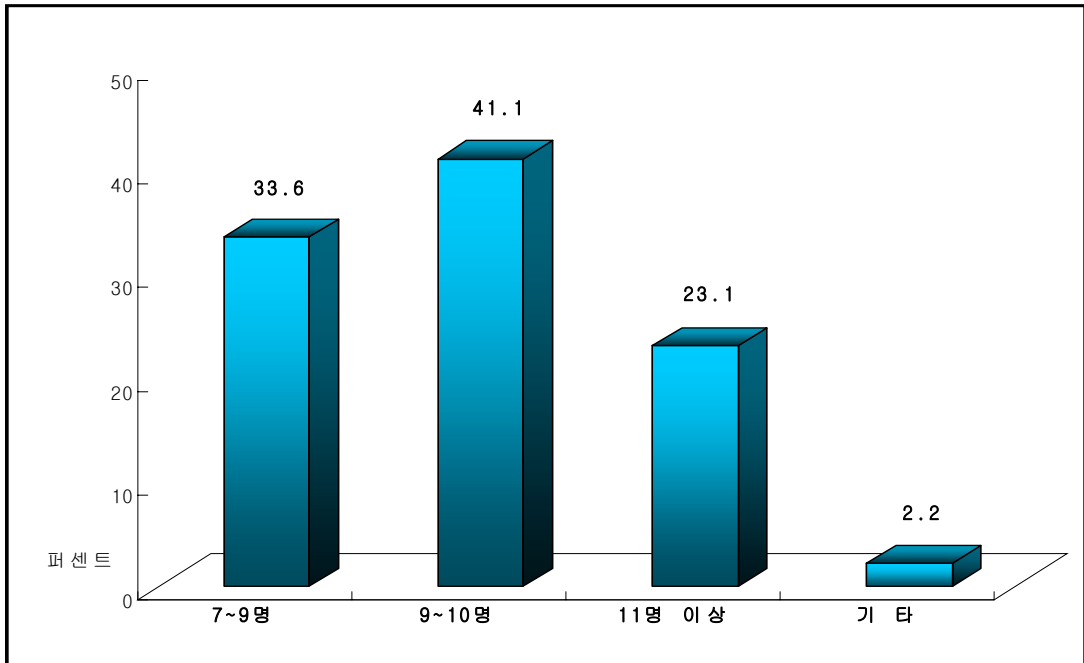
<그림 3-7>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주체를 언론기관으로 할 경우 견해

□ 향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 지급 시 적정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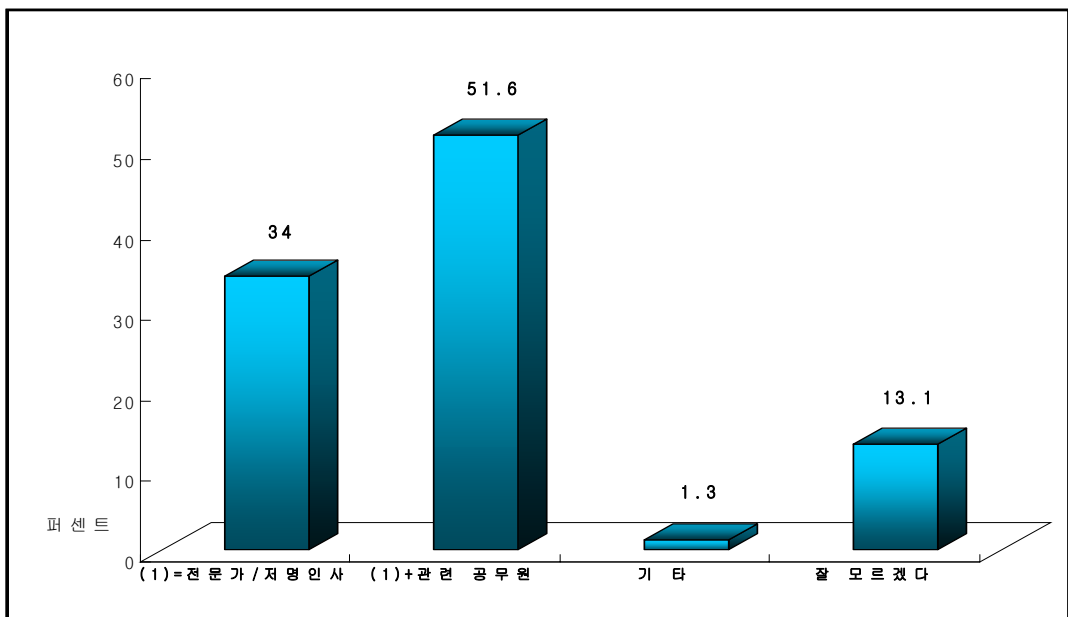
<그림 3-8> 향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의 적정액에 대한 견해

□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의 수



<그림 3-9>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의 수에 대한 견해

□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의 구성 방법



<그림 3-10>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 구성 방법에 대한 견해

제4장 정책 제언 : 효율적 운영방안

제1절 수상 분야의 축소 방안

여론조사 결과, 현재 10개 분야로 시상하고 있는 “시상분야를 줄일 필요가 있다.”에 44.2%(1,311명)가 응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시상 분야는 “몇 개 분야가 적당한가”에 대하여

- ▶ 5개 분야(34.9%), 4개 분야(15.2%), 3개 분야(12.1%), 6개 분야(9.8%), 7개 분야(9.5%) 등으로 응답
- ▶ 3개 분야에서 7개 분야에 이르는, 즉 10%대의 응답률에서 최고 35%대의 응답률 가운데 가장 많은 분야로 제시한 분야의 순위는,
 - (1) 경제·상공업 분야 160개, (2) 문화·예술 126개,
 - (3) 효열 분야 108개, (4) 체육 분야 77개,
 - (5) 공익 분야 75개, (6) 농림수산 분야 57개
 - (7) 학술 분야 51개, (8) 근로 분야 38개,
 - (9) 언론 분야 22개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10개 분야를 통합·축소하고자 한다면, 다음 순위 범주에서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한다.

※수상분야의 축소 시 대상의 우선 순위

순위	(1)	(2)	(3)	(4)	(5)	(6)	(7)
대상	경제 대상	문예 대상	효열 대상	체육 대상	공익 대상	농림수 산대상	학술언 론대상
분야	경제·상공업·근로 분야	문화·예술 분야	효열 분야	체육 분야	공익 분야	농림수산 분야	학술·언론 분야

이를 현재는 물론이요, 향후 도정의 핵심이어야 할 경제살리기와 병행하여 대상의 각 명칭 앞에 “자랑스런 전북인”을 전제, 재 규정화하면 다음과 같다.

- (1) **경제 대상(경제·상공업·근로 분야)** : 일자리 창출과 첨단산업 및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한 자, 생산성을 높이고 신기술 개발·수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 사업장·기업체 등에 종사하면서 자기 직무에 정려하여 생산성 향상 또는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여 공적을 쌓은 자
- (2) **문예 대상(문화·예술 분야)** : 문학·미술·음악·연극·연예분야 등에서 활발한 연구 창작 발표 등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자
- (3) **효열 대상(효열 분야)** : 경노효친사상이 투철하고 미풍양속을 실천함으로써 주민의 칭송을 받는 효자·효부·열녀
- (4) **체육 대상(체육 분야)** : 도민 체위향상에 기여하였거나 체육인으로서 전북체육의 명예를 빛나게 한 자
- (5) **공익 대상(공익 분야)** : 공공사업·자선사업·기타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전북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향토를 위해 헌신적인 공적을 쌓은 자
- (6) **농림수산 대상(농림수산 분야)** : 농업·축산·수산·임업 분야에서 농림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 (7) **학술·언론 대상(학술·언론 분야)** : 학술·교육·언론 분야에서 향토발전에 기여한 자

제2절 운영주체 이전 및 시상금 지급 방안

1. 운영주체의 이전 : 과반 수 이상 반대

- ▶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6.1%(1,662명)는 “현행법상 시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해도 전라북도지사 명의의 표창 지급이 좋다.”라고 응답함으로써 굳이 운영주체의 이전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상금 지급 방안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들이 운영주체를 바꿔 가면서까지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한다 할지라도, 시상금 지급을 통해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위상 정립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시상금 지급 방안 : 현행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주

- ▶ 현행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기존처럼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을 지급하며 대상 자체를 지속시키고자 한다면, 민간단체나 민간위원회(가칭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회”) 구성(기존 전북애향운동본부도 가능)을 통해 운영주체를 완전히 바꾸어 진행해야 한다.
- ▶ 가칭 「자랑스런 전북인을 위한 재단」 등 민간단체나 위원회 구성을 통해 시상금 재원(기금) 조성을 하여 운영한다. 전라북도 등 관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주에서만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참조하는 정도로 관여하고, 그 이상 관여하지 않는 것이 현행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상의 공정성이나 권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현행 공직선거법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전북도에서 주관하지 말고, 앞에서 예시한 가칭 「자랑스런 전북인을 위한 재단」의 설립이나 기존의 「전북애향운동본부」 같은 공익기관이 운영주체가 되어야 한다.

- 그러한 민간단체나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 전라북도에서 행정적 도움을 주는 운영 방식을 택해야 한다.
 - 기존처럼 도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시상식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도지사 명의의 패와 메달이 아닌, 민간단체장(혹은 위원장) 명의의 패와 메달 및 시상금 지급만이 가능하다.
 - 시상금 조성이 재단 구성을 통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협찬을 통해 조성한다.
- ▶ 또한, 시상금 지급의 경우에는 시상분야를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5~6개 분야로 적정하게 줄여 시상금을 높이며, 대외적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상금 지급 방안 : 현행 선거법에 의해 금지

- ▶ 전라북도와 민간단체의 동시 운영을 통해 진행한다. 단, 도지사는 명예로운 표창장, 패 및 메달을 수여하며, 별도 민간단체(혹은 공익기관)는 시상금을 지급한다? : 현행 선거법상 불법
- ▶ 도지사 명의의 패와 메달만으로 시상은 하되, 그에 상당한 상금은 도비에서 지출하는 것보다 향토기업이나 금융기관의 협찬을 얻어 도민 전체의 따뜻한 사랑이 담기도록 도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시상식을 하면 더욱 큰 효과를 창출한다? : 현행 선거법상 불법

제3절 전북 최고의 상으로써의 위상 정립 방안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에 대한 인지도와 관계없이 과반 이상의 다수의 응답자들은 전라북도 지사의 표창 자체가 무엇보다 의미 있는 시상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1. 선정과 관련한 사전·사후 관리 : 위상 정립의 선결 과제

□ 사전 관리 :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은 아주 명예로운 상이다.

- ▶ 전북 사회 풍토(혹은 전북인의 의식)를 돈보다 명예를 더 중하게 여기는 인식과 의식의 대전환이 사전에 전제되어야 한다.
- ▶ 전북의 대상에 걸맞게 명예로운 사람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정치적 입김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자랑스런 전북인 발굴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이 전제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 ▶ 시상의 대표성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수적이다.
- ▶ 시상이 전북인의 자긍심을 드높일 뿐만 아니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전북인의 단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도록 사전에 정교하고 치밀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사후 관리 : 위상의 정립 및 확산 방안

- ▶ 도민 및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상의 위상을 유지하며, 공간적으로 도 내·외는 물론이요, 해외에서조차도 타의 귀감을 사게 해야 한다.
- ▶ 시상 자체를 경제적 낙후로 인해 무기력에 빠질 수 있는 전북도민의 정신적 자부심과 자존을 재생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 ▶ 운영주체에 무관하게 방송·신문 등의 적극 후원을 통해 수상인들의 업적이 널리 알려지고, 도청에서도 전북인대상이 명실상부한 전북인의 대표상이 되도록 정치성 없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수상자들이 진정 지역에서 명예를 인정받을 수 있는 「명예의 전당」 운영 등을 통해 상의 진가를 인정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 ▶ 수상자들의 삶을 주제로 한 시군 순회강연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 전북을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할 때 행정지원을 강화 내지 보장하고, 도정 명예자문 및 고문 위원 등으로 위촉함으로써 수상자 자신의 삶이 행복해 질 수 있는 기회를 도 차원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2. 선정 기준

- ▶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구성을 통해 인지도, 학력 수준 및 연령 순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개인의 업적평가에서 수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 ▶ 분야별로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선정 기준의 계량화를 통한 객관성을 확보하여 도민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한다.
 - 즉,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엄격·공정한 선정 기준을 설정하며, 추천 조건을 강화하여 처음부터 상의 대표성을 확립해야 한다.
 - 각 분야별로 심사·평가 내용과 기준의 통일성이 필요하며, 수치화할 수 있는 경우는 정량지표를 설정하는 등 뚜렷하게 구분되는 성과를 선정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이하 <표 4-1> 참조)
- ▶ <표 4-1>의 선정 평가 기준표의 적용은 본선 심사위원회에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
 - 그러나 1차(분야별 심사위원회)와 2차(본선 심사위원회)에서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위원들의 평가 결과에 대한 공정성 확보도 필요

<표 4-1> 선정 평가 기준표

접수번호		선정평가일자 : 2007. 00. 00		
평가 점수		선정 평가 위원	소속	(서명)
			성명	

선정평가항목	세부 평가 내용	배점	평가점수					
			A	B	C	D	E	F
도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규를 준수한 정도 ◆도덕적인 평가 정도 : 여론조사 추가 반영^{*1} 	10	A	B	C	D	E	F
			10	9	8	7	6	5
업적공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분야 공헌 정도 내지 업적의 효과 ◆경제발전/재정확충 기여 : 수출, 생산, 브랜드개발, 농수특산물 육성 실적 등 ◆노사 화합, 도민 화합, 가정 화합 기여도 ◆삶의 질 개선 ◆신 지식·정보의 창출 및 전달 	30	A	B	C	D	E	F
			30	27	24	21	18	15
행복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웃을 행복하게 한 정도 ◆전북을 민주복지사회로 이끈 기여도 	10	A	B	C	D	E	F
			10	9	8	7	6	5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분야 관련 귀속성 내지 전문성 	10	A	B	C	D	E	F
			10	9	8	7	6	5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상자에 대한 전북도민의 인지도^{*1} 	10	A	B	C	D	E	F
			10	9	8	7	6	5
수상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 표창 등 각종 수상 실적 	10	A	B	C	D	E	F
			10	9	8	7	6	5
애향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과의 연고성 및 유대 정도 ◆전북사랑 실천 정도 	10	A	B	C	D	E	F
			10	9	8	7	6	5
대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정도 ◆도민의 가치(혹은 정서)에의 부합성 	10	A	B	C	D	E	F
			10	9	8	7	6	5
합 계		100						

*1: 도민 여론 조사 방식을 통해 심사위원에게 제공

⇒ 특히, 이를 위한 도민 여론 조사는 전북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며, 향후 홈페이지의 유용성 제고 차원에서 회원 가입자 한에 참여(여론조사) 가능케 하며, 1회원에게 1참여만을 허용하는 여론 조사 장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실시

3. 선정 대상

- ▶ 가장 정직한 방법으로 전라북도의 자랑스런 위인상을 만들 수 있게 전북은 물론이요, 국내외적으로 영광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선정해야 한다.
- ▶ 이론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전북이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며 문화터전이 되어 21세기 문화전북을 다양하게 발전시켜 온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
- ▶ 정치적 혹은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는 사람이 선정되어야 한다.
- ▶ 도내 출생자가 아닐지라도 전북을 고향으로 하여 살고 있는 사람, 나아가 전북발전에 큰 기여를 한 타 시·도민일지라도 모두를 시상 후보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4. 선정 과정: 선정과정에서부터 상의 위상을 제고

□ 선정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엄정한 공정성 확보

- ▶ 선정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한 올바른 심사에 의해 훌륭한 후보도 자랑스런 전북인을 선정해야 한다.
- ▶ 수상자와 운영위원회 위원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 ▶ 대상자 선정 시에는 반드시 사전 확인(현장 및 성과 확인)을 통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본으로 하여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 ▶ 심사위원 선정이나 심사과정에서부터 투명성, 공정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강화해야 한다.
- ▶ 또한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누가 심사위원인지를 알 수 없게 하는 심사위원선정에 대한 정보 유출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 선정과정에 많은 사람의 참여 확립: 축제화 전단계 창출

- ▶ 대상 선정과정에 가능하면 많은 전북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필요하다.
- ▶ 신뢰성과 대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금이나 부상이 아닌 선정과정에 많은 도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 무엇보다도 전북을 대표하는 상이니 만큼 이 대상을 시상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사람이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 ▶ 선정심의위원회의 참여위원들이 너무나 형식적인 전문가(단체 대표보다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선정 방안

- ▶ 표면적인 유명인사 중심의 선발도 필요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훌륭한 전문인, 자랑스런 전북인의 발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 각 분야에 전문가로 위원이 구성되어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 선정과정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 ▶ 선정 제도의 수월성을 확보해야 하며, 매년 관련 분야를 반드시 채우기식의 선발은 지양하고 요건에 충족되는 분만을 선정해야 한다.
- ▶ 수상 후보에 대한 인터넷 투표나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인터넷 투표(혹은 별도의 여론조사)를 통해 획득한 점수 반영은 일정점수(예를 들어 30% 반영)를 부여하고, 전문가의 의견(50%), 관계자 의견과 기타(20%) 등으로 배점을 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 이는 앞에서 제기한 “선정평가기준”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운영의 묘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 ▶ 대상의 후보를 시민들의 추천으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시민위원들의 투표방식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 ▶ 선정 시 명분과 실리, 공정성(혹은 공적)을 모두 세밀하게 조사하여 이에 타당한 인물이 선정 되도록 해야 한다.

6. 시상 방법

- ▶ 공직선거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도지사가 수여하는 명예로운 상으로 지속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사기진작을 위해 시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
- ▶ 다른 시상과 차별화된 점이 있어야 한다. 즉, 도민 전체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사전 사후 홍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 시상이 매년 실시하는 의례적인 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즉, 매년 시상하는 것은 자칫 상을 주기 위한 의례적인 시상이 될 수 있어, 2년 단위 혹은 적정 수상자가 없을 때는 건너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7. 별도의 핵심 정책제언

- ▶ 「전북을 빛낸 자랑스런 전북인 100인」 선정 발표
 -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 수여와 같은 패와 메달 및 시상금 지급과는 별도로 각계각층에서 전북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매년 연령과 관계없이 해마다 「전북을 빛낸 자랑스런 전북인 100인」 이름으로 선정하여 발표하는 행사를 전북도민의 날에 실시한다.
- ▶ 타 시도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벤치마킹
 - 향후 타 지역 사례를 별도로 확인하여 타 시도의 장점을 검토하고, 원용할 수 있는 점은 활용하여야 한다.

목 차

요약 및 정책제안	i
제1장 조사·연구·분석의 개요	1
제1절 조사·연구·분석의 목적 및 내용	3
제2절 조사·연구·분석 방법 및 기대효과	4
1. 조례 및 법 등에 대한 문헌 연구	4
2. 조사·분석 방법	4
3. 주요 조사·연구·분석 범위 및 내용	9
4. 연구 기대효과	10
제2장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	11
제1절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추진 개요	13
제2절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추진경과 및 조례 제정경위	15
1. 추진 경과	15
2. 조례제정 경위	15
제3절 타 시·도 및 도내 시장현황	17
제4절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장 문제점	21
제3장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조사·분석 결과	23
제1절 각 설문에 대한 빈도 분석	25
1.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에 대한 인지도	25
2.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대표성	26
3.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장 분야의 증감	27
4.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걱정 시장 분야	29
5.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 지급 유무	31
6.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운영주체	33
7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주체를 언론기관으로 할 경우	35
8. 향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 지급 시 걱정 금액	37
9.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의 수	39
10.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의 구성 방법	41

제2절 조사 대상별 교차분석	43
1. 조사 대상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에 대한 인지도	43
2. 조사 대상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에 대한 대표성 인정도	44
3. 조사 대상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분야 증감에 대한 견해	45
4. 조사 대상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적정 시상 분야에 대한 견해	46
5. 조사 대상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 지급에 대한 견해	47
6. 조사 대상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운영주체에 대한 견해	48
7. 조사 대상별 운영주체를 언론기관으로 할 경우에 대한 견해	49
8. 조사 대상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 지급 시 적정 금액	50
9. 조사 대상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의 수에 대한 견해	51
10. 조사 대상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의 구성 방법	53
제3절 인지도별 교차분석	54
1.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에 대한 인지도별 대표성	54
2. 인지도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 분야에 대한 견해	55
3. 인지도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적정 시상 분야에 대한 견해	56
4. 인지도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 지급에 대한 견해	57
5. 인지도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 지급 시 적정 금액	58
6. 인지도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의 수에 대한 견해	59
7. 인지도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의 구성 방법	60
제 4 장 정책 제언 : 효율적 운영방안	61
제1절 수상 분야의 축소 방안	63
제2절 운영주체 이전 및 시상금 지급 방안	65
제3절 전북 최고의 상으로써의 위상 정립 방안	67
1. 선정과 관련한 사전·사후 관리 : 위상 정립의 선결 과제	68
2. 선정 기준	69
3. 선정 대상	71
4. 선정 과정: 선정과정에서부터 상의 위상을 제고	72
5. 선정 방안	73
6. 시상 방법	74
7. 별도의 핵심 정책제언	74
[부록 1] ARS여론조사 결과	75
[부록 2]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여론조사” 설문지	97
[부록 3]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조례	103

표 목 차

<표 2-1> 포괄적 대상 분류에 의한 유효 표본의 결과	7
<표 2-2> 세부 직업별 유효 표본의 결과	8
<표 2-3> 주요 조사 내용	9
<표 3-1>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에 대한 인지도	25
<표 3-2>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대표성에 대한 견해	26
<표 3-3>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 분야의 증감에 대한 견해	28
<표 3-4>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적정 시상 분야에 대한 견해	29
<표 3-5>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 지급 유무에 대한 견해	32
<표 3-6>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주체를 전라북도 외로 할 경우에 대한 견해	33
<표 3-7>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주체를 언론기관으로 할 경우 견해	35
<표 3-8> 향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의 적정액에 대한 견해	37
<표 3-9>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의 수에 대한 견해	39
<표 3-10>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 구성 방법에 대한 견해	42
<표 3-11> 대상에 대한 조사 대상별 인지도	43
<표 3-12> 조사 대상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에 대한 대표성 인정도	44
<표 3-13>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 분야의 증감에 대한 견해	45
<표 3-14> 조사 대상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적정 시상 분야에 대한 견해	46
<표 3-15> 조사 대상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 지급에 대한 견해	47
<표 3-16> 조사 대상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주체에 대한 견해	48
<표 3-17>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주체를 언론기관으로 할 경우 견해	49
<표 3-18> 조사 대상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 지급 시 적정 금액	50
<표 3-19> 조사 대상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의 수에 대한 견해	51
<표 3-20> 시상 분야 증감 의견 대비 운영위원의 수에 대한 견해	52
<표 3-21>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 구성 방법에 대한 견해	53
<표 3-22>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에 대한 인지도	54
<표 3-23> 인지도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 분야의 증감에 대한 견해	55
<표 3-24> 인지도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적정 시상 분야에 대한 견해	56
<표 3-25> 조사 대상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 지급에 대한 견해	57
<표 3-26> 인지도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 지급 시 적정 금액	58
<표 3-27> 인지도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의 수에 대한 견해	59
<표 3-28>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 구성 방법에 대한 견해	60
<표 4-1> 선정 평가 기준표	70

그림 목 차

<그림 2-1> 포괄적 대상 분류에 의한 유효 표본의 결과	7
<그림 2-2> 세부 직업별 유효 표본 조사 결과	8
<그림 3-1>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에 대한 인지도	26
<그림 3-2>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대표성에 대한 견해	27
<그림 3-3>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 분야의 증감에 대한 견해	28
<그림 3-4>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적정 시상 분야에 대한 견해	30
<그림 3-5>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 지급 유무에 대한 견해	32
<그림 3-6>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주체를 전라북도 외로 할 경우에 대한 견해 ...	34
<그림 3-7>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주체를 언론기관으로 할 경우 견해	36
<그림 3-8> 향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의 적정액에 대한 견해	38
<그림 3-9>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의 수에 대한 견해	40
<그림 3-10>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 구성 방법에 대한 견해	42

제 1 장

조사·연구·분석의 개요

- 제 1 절 조사·연구·분석의 목적 및 내용
- 제 2 절 조사·연구·분석 방법 및 기대효과

제1장 조사·연구·분석의 개요

제1절 조사연구·분석의 목적 및 내용

1. 조사연구·분석의 목적

본 조사·분석은 전북 일반도민, 전문가 집단 및 전라북도 행정공무원과 도·시·군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생각과 의식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조사연구·분석 내용

2.1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조사·분석

- ▶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실시에 대해 도민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에 대한 인식을 검토한다.

2.2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에 대한 도민의 평가 수렴·분석

- ▶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에 대해 도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대표성)에 대한 “평가 의견”의 수렴을 통해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의 위상을 확인한다.

2.3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 조정 방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분석

- ▶ 수상분야의 세분화 및 중복성 문제 대두에 따른 기존 분야의 조정방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한다.

2.4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 운영 주체 이전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분석

- ▶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시상금(500만원) 수여 불가에 따라 지급하지 못하는 시상금 지급을 위한 운영 주체 이전 방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한다.

2.5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의 적정성 모색

- ▶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 수상자에게 공직선거법 개정 전에 지급하였던 시상금의 실시 방안 및 적정 시상금 정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한다.

2.6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 심사위원의 구성 방안 모색

- ▶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의 적정 구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위원 구성에 대한 종합 의견을 제시한다.

3. 조사연구·분석 기간 : 2007년 2월~5월

제2절 조사연구·분석 방법 및 기대효과

1. 조례 및 법 등에 대한 문헌 연구

- ▶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조례에 대한 내용을 기본 전제로 한다.
- ▶ 특히, 조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실시에 변화를 초래한 선거법을 연구 수행의 기본 제약 조건으로 전제한다.

2. 조사·분석 방법

본 조사·분석에서 논의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는 이미 기존에 실시해 온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에 대한 실시 현황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반

도민, 전북출신 전문가 집단, 도와 14개 시·군의 일반 행정공무원 및 전라북도
도·시·군의회 의원의 견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 설계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2.1 조사 설계

2.1.1 ARS 조사

- ▶ 조사 대상 : 20대 이상 전북도민
- ▶ 조사 방법 : ARS 전화여론조사
- ▶ 표본 크기 : 전체 표본 - 4,000명
유효 응답 표본 2,093명(최종 유효 응답 기준)
- ▶ 조사 일자 : 2007년 3월 20일 ~ 23일
- ▶ 조사 기관 : (주)오픈엑세스

2.1.2 E-mail 조사

- ▶ 조사 대상 : 전라북도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 확보된 전라북도
전문가 집단
- ▶ 조사 방법 : E-survey(E-mail)에 의한 설문 발송 및 수신
- ▶ 표본 크기 : 전체 표본 - 3,000명
유효 응답 표본 277명(최종 유효 응답 기준)
- ▶ 조사 일자 : 2007년 3월 17일 ~ 30일 / 3월 17일 1차 발송/
3월 19일 ~ 20일 2차에 걸친 협조 요청 발송
- ▶ 조사 기관 : 전북발전연구원(연구 책임자)

2.1.3 우편 및 직접 조사

- ▶ 조사 대상 : 전라북도, 14개 시·군 공무원 및 도·시·군의회 의원
- ▶ 조사 방법 : 우편 조사
- ▶ 표본 크기 : 전체 표본 - 740명(도 및 14개 시·군 공무원 및 의원)
유효 응답 표본 602명(최종 유효 응답 기준)
- ▶ 조사 일자 : 2007년 3월 15일 ~ 4월 9일 / 4월 11일 ~ 4월 27일
지방 의원에 대한 설문조사로 조사 기한 연장
- ▶ 조사 기관 : 전북발전연구원(연구 책임자), 전라북도 행정지원과
도 및 14개 시군 공무원·의원 740명(도·의회: 140, 시군·시군의회:
600)

2.2 자료 처리 및 분석

- ▶ 수집된 자료는 누락처리 여부를 사전 검토한 후 코딩을 통해 통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처리하였다.
- ▶ 분석과정은 통계프로그램 운영에서 먼저 빈도분석을 구하고,
- ▶ 제 변수와 인지도 및 직업 간의 교차분석을 실행하였다.
- ▶ 특히, 주요 교차분석 처리는 다음 두 경우에만 통계 처리 제시
 - 계산된 카이제곱(χ^2) 값이 카이제곱 분포표상 해당 자유도(df)의 기준이 된 카이제곱 값보다 큰 경우
 - 혹은, 유의수준의 수치가 0.05보다 작은 경우만을 통계 분석 대상으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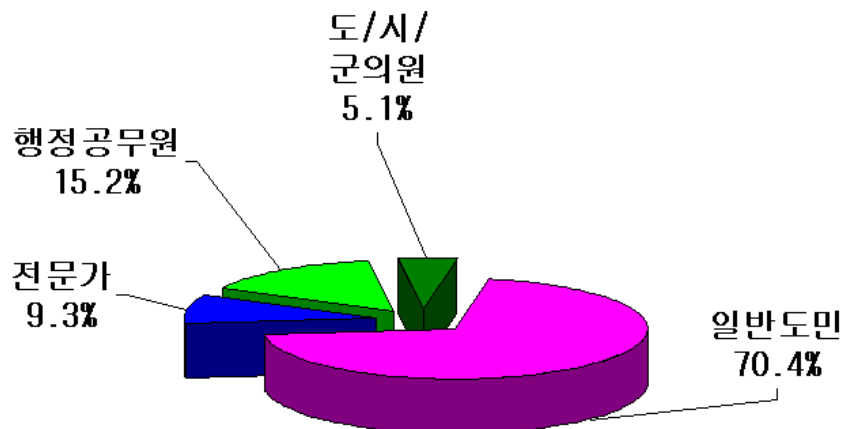
2.3 응답 유효 표본의 구성

- ▶ 본 조사는 세 가지 별도의 조사 기법을 통해 실시한 결과에 의해 응답 혹은 회수된 설문에 대해 연구책임자의 판단으로 설문 정도에 따라 유효 표본 여부를 결정하였다.
- ▶ 실제 조사결과에 수집된 유효 표본을 포괄적으로 대상 범주별 혹은 세부 직업별로 구분하였을 때 다음 <표 2-1> 및 <그림 2-1>과 같다.

- 별도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한 경우의 표본의 특성에 대해서는 부록 “ARS 전화여론조사 표본의 특성”을 참조
- ▶ 유효 표본 결과를 포괄적으로 대상을 분류하여 크게 네 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 일반 도민 전체 2,093명(70.4%)
 - 전라북도 출신 전문가 그룹 277명(9.3%)
 - 전라북도 본청 및 14개 시·군 행정공무원 450명(15.1%)
 - 전라북도 도·시·군의회 의원 152명(5.1%) 등으로 나타났다.

<표 2-1> 포괄적 대상 분류에 의한 유효 표본의 결과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일반도민	2093	70.4	70.4	70.4
	전문가	277	9.3	9.3	79.7
	행정 공무원	450	15.1	15.1	94.9
	도·시·군의원	152	5.1	5.1	100.0
	합 계	2972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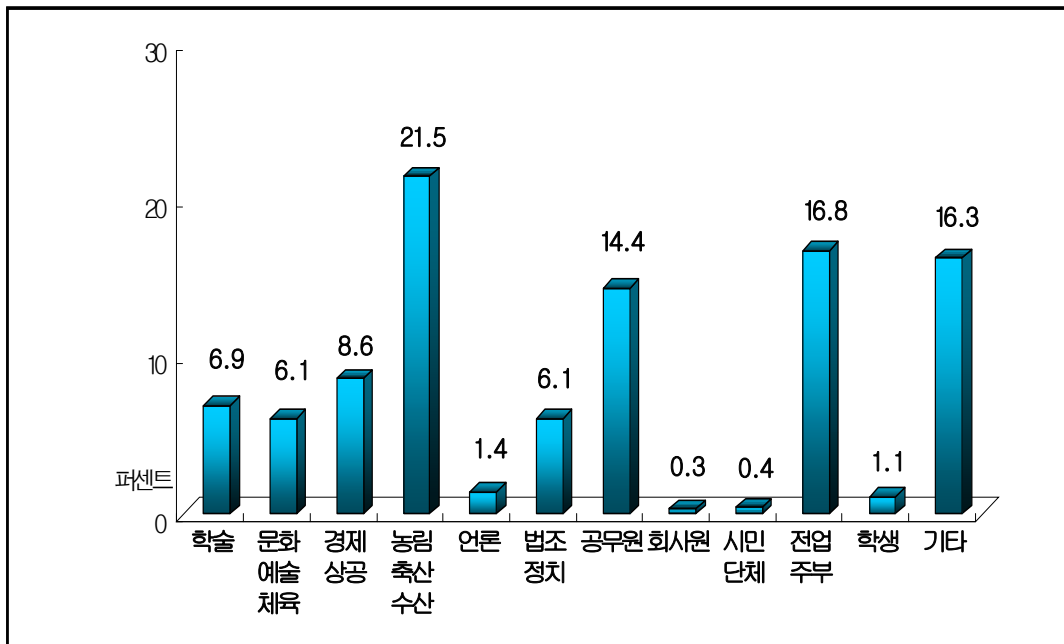


<그림 2-1> 포괄적 대상 분류에 의한 유효 표본의 결과

- ▶ 유효 표본 2,972명을 세부 직업별로 분류한 유효 표본 결과는 <표 2-2>와 <그림 2-2>와 같다.

<표 2-2> 세부 직업별 유효 표본의 결과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학술	206	6.9	6.9	6.9
	문화예술체육	181	6.1	6.1	13.0
	경제/상공	255	8.6	8.6	21.6
	농림/축산/수산	638	21.5	21.5	43.1
	언론	42	1.4	1.4	44.5
	법조/정치	181	6.1	6.1	50.6
	공무원	429	14.4	14.4	65.0
	회사원	9	.3	.3	65.3
	시민단체	12	.4	.4	65.7
	전업주부	500	16.8	16.8	82.5
	학생	34	1.1	1.1	83.7
	기타	485	16.3	16.3	100.0
	합 계	2972	100.0	100.0	



<그림 2-2> 세부 직업별 유효 표본 조사 결과

3. 주요 조사·연구·분석 범위 및 내용

- ▶ 본 연구가 추구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이하 대상)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지는 조사·연구·분석의 범위 내지 내용은 크게 다음 <표 2-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홉 개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 ▶ 대상에 대한 인지도는 대상에 대한 인지 정도에 따라 여타 변수간의 응답결과와의 관계성을 규정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실시하였다.
- ▶ 대상의 대표성에 대한 경우는 대상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 시상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설문은 이제까지 실시해 온 10개 분야에 대한 축소 내지 증가, 시상금 지급 여부, 적정 시상금 정도, 대상의 운영주체, 운영위원의 수 및 구성 등으로 기획하였다.
- ▶ 특히, 대상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자유 응답식 설문은 응답자들이 평소 갖고 있는 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표 2-3> 주요 조사 내용

주요 조사 내용 내지 분석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에 대한 인지도 ▶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대표성에 대한 견해 ▶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 분야에 대한 견해 ▶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견해 ▶ 향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주체에 대한 견해 ▶ 향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견해 ▶ 향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의 수에 대한 견해 ▶ 향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한 견해 ▶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

4. 연구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해 기 진행되어 온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상의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한 위상 정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 여론 조사를 통해 본 상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던 도민들에게 본 대상에 대한 인지경로를 구축할 수 있는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연구결과 등을 통해 도민을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 특히,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민선4기 도정이 고객인 도민 중심의 행정을 실시하고 있음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제 2 장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제 1 절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추진 개요
- 제 2 절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추진경과 및 조례 제정경위
- 제 3 절 타 시도 및 도내 시상현황
- 제 4 절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 문제점

제2장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추진 개요

□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추진 개요

- 시상일자 : 매년 10월 25일
- 장 소 : 도민의 날 기념식장
- 내 용 : 자랑스런 전북인대상(패) 및 메달
- 시상분야 : 10개 분야

- ① 경 제 : 일자리 창출과 첨단산업 및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한 자
- ② 문화·예술 : 문학·미술·음악·연예분야 등에서 활발한 연구 창작 발표 등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자
- ③ 학 술 : 학술·교육 분야에서 향토발전에 기여한 자
- ④ 상공업 : 생산성을 높이고 신기술 개발, 수출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
- ⑤ 농림수산 : 농업·축산·수산·임업 분야에서 농림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 ⑥ 공 익 : 공공사업·자선사업·기타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전북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향토를 위해 헌신적인 공적을 쌓은 자
- ⑦ 체 육 : 도민 체위향상에 기여하였거나 전북체육의 명예를 빛나게 한 자
- ⑧ 효 열 : 경노효친 사상이 투철하고 미풍양속을 실천함으로써 주민의 칭송을 받는 효자·효부·열녀
- ⑨ 근 로 : 사업장·기업체 등에 종사하면서 자기 직무에 정려하여 생산성 향상 또는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여 공적을 쌓은 자
- ⑩ 언 론 : 언론분야에서 향토발전에 기여한 자

- 수상자격
 - ▶ 후보자 추천 일을 기준으로 전라북도에서 5년 이상 거주하거나, 본적(원적)이 전북인인자로서 해당 분야의 공적이 있는 자

- 수상후보자 추천 및 제출서류
 - ▶ 추천자 : 도민 누구나 추천, 도내 각 기관·단체, 기업체장도 추천
 - ▶ 제출서류 : 추천서·공적조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 접수기간 : 7 ~ 8월말 ('06년도의 경우 : 8. 1 ~ 8. 31)
 - ▶ 접수처 : 도 및 시·군

- 수상자 선발
 - ▶ 분야별 심사위원회와 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야별 1명씩 선발

- 심사방법 : 2계층제 (본심사 및 분야별 심사)
 - 본 심 사 : 분야별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 심사 수상자 최종결정
 - ※ 심사위원 15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 : 도지사)
 - 분야별심사 : 각 분야별 예비심사 후 본심사위원회에 추천 (무추천 가능)
 - ※ 심사위원 7인 이내 실·국장 주관 구성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시 상 : 분야별 상패 및 메달 수여
 - ※ '05. 8. 4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부상(500만원) 수여 불가

제2절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추진경과 및 조례 제정경위

1. 추진 경과

- '95년도까지 애향도민의 장, 전북문화상, 영광의 얼굴, 산업발전대상, 농림어업대상 등 5개 형태로 30개 분야 시상
- '96년도에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으로 통합하여 문화예술, 학술언론, 산업, 공익, 체육, 효열 등 6개 분야 시상
- '97년 12월 「근로분야」 신설 : 7개 분야
- '03년 1월 「산업분야」 분리 : 『상공업』과 『농림수산』으로 분리 8개 분야
- '06년 3월 「학술언론분야」 분리 : 「학술」과 「언론」으로 분리 9개 분야
- '06년 10월 「경제분야」 신설 : 10개 분야
- '06년 현재 수상자 : 70명

2. 조례제정 경위

- '95년까지의 시상제도 : 5종 31명
 - ▶ 애향도민의장(8부문)
 - 문화·산업·근로·공익·애향·새마을·체육·효열장
 - ▶ 문화상(7부문) : 문학, 언론, 학술, 미술, 음악, 연예, 지역개발
 - ▶ 영광의얼굴(5부문) : 문화예술, 교육학술, 산업, 사회봉사, 체육
 - ▶ 산업발전대상(6명) : 제조업 발전 유공자
 - ▶ 농림어업발전대상(5부문) : 식량, 원예, 축산, 수산, 산림
- 「자랑스런전북인대상」으로 통·폐합 경위
 - ▶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안 마련 의회상정

- 제121회 임시회('96. 8. 12~8. 19)
 - 산업·공익·문화체육·효열 등 4개부문
- ▶ 내무위 간담회 : 2회('96. 8. 5, 8. 16)
 - 문화체육부문을 3개 부문으로 분리 : 문화예술, 학술언론, 체육
- ▶ 도의회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96. 8. 19) ⇒ '96. 8.29 조례공포
 - 문화예술, 학술언론, 산업, 공익, 체육, 효열 등 6개부문
 - 상금 500만원
- ▶ 의원발의 근로부문 신설 ⇒ '97. 11. 21 조례공포
 - 문화예술, 학술언론, 산업, 공익, 체육, 효열, 근로
- ▶ 산업부문을 상공업부문, 농림수산부문으로 분리 ⇒ '03. 1. 3 조례공포
 - 문화예술, 학술·언론, 상공업, 농림수산, 공익, 체육, 효열, 근로

제3절 타 시도 및 도내 시상현황

1. 타 시도 시상 현황

(2006. 12. 31현재)

구 분	명 칭	조 례 명	수 상 분 야	시 상 금
전라북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전라북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조례	10분야 10명 - 경제, 문화예술, 학술, 상공업, 농림수산, 공익, 체육, 효열, 근로, 언론	미지급
서울시	서울사랑 시민상	서울특별시 서울사랑 시민상조례	9분야 9명 - 봉사, 문화, 환경, 복지, 어린이 및 청소년, 여성, 교통, 건축, 토목	미지급 (대책없음)
부산시	자랑스런 시민상	부산광역시 포상조례	3분야 7명 - 애향, 봉사, 희생 (대상 1, 본상 3, 장려 3)	미지급 (대책없음)
대구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대구광역시 시민상조례	4분야 5명 - 지역사회개발, 사회봉사, 선행, 효행 (대상 1, 본상 4)	미지급 (대책없음)
인천시	시민상	인천광역시 시민상조례	9분야 10명 - 사회공익상 6(새마을, 봉사, 공익, 환경, 국제교류, 기타 특별) - 효행상 1 - 산업발전상 3 (농수산 상공업: 근로자, 사용자)	미지급 (대책없음)
광주시	시민대상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5분야 5명 - 사회봉사대상, 학술대상, 예술대상, 체육대상, 지역 경제진흥대상	미지급 (대책없음)
대전시	자랑스런 대전인상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10인이내 - 경제과학, 문화, 체육, 청소년, 여성, 환경, 건축, 광고, 장애극복, 기타 지역발전 유공 등	미지급 (대책없음)

구 분	명 칭	조 례 명	수 상 분 야	시 상 금
울산시	시민대상	울산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대상 1, 본상 2 (지역사회발전, 희생봉사, 이웃 돕기, 효행, 환경가꾸기 등 유 공자)	미지급 (대책없음)
강원도	선행 도민대상	강원도 선행도민 대상 조례	5분야 5명 - 친절봉사, 근검, 효행, 의행, 애향	미지급 (대책없음)
충청 북도	도민대상	충청북도 도민대상 조례	11분야 11명 - 학술, 문학, 예술, 지역발전, 교육, 체육, 여성, 청소년, 농어 민, 산업, 근로	미지급 (대책없음)
충청 남도	자랑스런 충남인상	충청남도 포상조례	8분야 12명 (분기별 3명씩) - 사회봉사, 살신성인, 기업인, 근로자, 농어민, 문화, 예술, 체 육인	미지급 (대책없음)
전라 남도	자랑스런 전남인상	전라남도 포상조례	10분야 10명 - 문화, 예술, 체육, 농업, 투자 유치, 농산물판촉, 친환경농업, 봉사, 지역안전, 여성	미지급 (대책없음)
경상 북도	자랑스런 도민상	경상북도 포상조례	23명(시·군별 각 1명)	미지급 (대책없음)

※ 경기도, 경상남도, 제주도는 별도 시상제도 없음

2. 도내 주요기관별 표창 현황

표창명	주관기관	선발인원	포상내역	표창시기	비고
친절봉사대상	전북도민일보사	5명 (민간 2, 공무원 2, 경찰 1)	각 200만원, 경찰관 특진	4월중	선거법 개정 전 전라북도 공동 주관
전북대상	전북일보사 페이퍼코리아	5개 부문 5명 (학술, 교육, 산업, 봉사, 예술·체육)	대상 500만원, 부문별 300만원	12월중	
청백리상	전북연합신문	4개 부문 4명 (행정2, 교육, 인권)	부문별 100만원	12월중	
전북의어른상	KBS전주방송 총국	1명	-	9월 말	현대자동차 2,000만원 시상금 협찬
봉사대상	MBC전주 문화방송 전주라이온스 클럽	3개 부문 3명 (공익, 효열, 교육)	부문별 1,000만원	4월중	
초아의봉사대상	JTV전주방송 국제로타리 3670지구	3개 부문 3명 (교육, 공익, 사회봉사)	부문별 1,000만원	2월중	
애향대상	전북애향운동 본부	3개 부문 3명 (대상, 본상, 법인특별상)	대상 500만원 본상 300만원 법인 금메달 15돈	11월중	

3.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역대 수상자 현황

분야별 연도별	성명	경 제	문화예술	학술연 론	산 업		공익	체육	효열	근로	언론
					상공업	농림수산					
2006 (10)	성명	김관규	이의식	나종우	염규식	윤창호	유상순	구기섭	박봉순	최희상	임 환
	직업	타타대우 상용차 (주)전무	행촌 철예 공방	원광대 학교 교수	(주)마이 다스 공장장	농업	주부	전라북도 레슬링 협회장	농업	KT&G 노조전북 지부장	전북도민 일보편집 국장
2005 (8)	성명		고 단	신효균	진상범	서영숙	김택수	박대우	문제현	정상균	
	직업		없음	JTV 전주방송 방송본부 부장	지엠대우 오토엔 테크놀 로지(주) 군산사업 본부장	축산업	(유)호 남고속 대표이사	한일장 신대 교수	없음	롯데햄· 우유 노조지부장	
2004 (8)	성명		윤석길	양문식	손홍기	김홍빈	이해석	박성현	박오목	이강본	
	직업		전주성 모간호 교육원 장	전북대 학교 교수	(주)홍익 금속 대표이사	낙농업	익산 만남의 교회 목사	양궁 선수	농업	한국노총 전라북도 지역본부 부의장	
2003 (6)	성명		김유영		이상돈	유석용	김형주	김영선	이금안		
	직업		판소리 민요 연구소장	없음	영우냉동 식품 대표이사	농업	삼안코 퍼레이 션회장	전북농구 협회장	주부	없음	
2002 (7)	성명		소병진	정헌택	한춘기		김재필	김문철	김옥순	이춘호	
	직업		경제소목 공예 연구소장	원광대 학교 의과대 학교수	농업		자립복 지재단 대표이사	전북축구 협회장	농업	(주)쌍방울 노조위원장	
2001 (5)	성명				홍종식		김연중	이호중	이진형	고진곤	
	직업		없음	없음	금전기 업 대표이사		원우건 설 표	고창 군수	무직	전북화학 노련본부장	
2000 (6)	성명		조금숙		송화수		송경태	형재영	오공례	조중연	
	직업		前장수 교육장	없음	영농조합법 인 대표이사		전북시 각장애 인 도서관 장	마라톤 선수	주부	체 신 공무원	
1999 (5)	성명		고두영	이영희			이석영	유상수	김효순		
	직업		문인협회 장수군 지부장	전북대 교수	없음		전북대 교수	전북체육 동우회 운영위원	주부	없음	
1998 (6)	성명		진동규	서 승	박문기		윤여웅	김동문	서학순		
	직업		신 흥 중 교 사	언론인	유기농업인		회사대 표	배드민턴 선 수	주부	없음	
1997 (4)	성명		임석윤				이길여	최찬욱	장금순		
	직업		영생고 교사	없음	없음		인천길 병원 재단이사 장	전주시 의회 의원	주부	-	
1996 (5)	성명		윤정옥		홍종길		정봉교	양희철	배설자		
	직업		영생여 교사	없음	(유)금전기 업사		(주)제 일건설 회장	나포산 업(주) 회장	주부	-	
계	70	1	10	6	9	4	11	11	11	6	1

제4절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 문제점

- 부상 수여 불가로 후보자 추천 급감

※ 접수현황

구분	계	경제	문화 예술	학술 (언론)	상공 업	농림 수산	공익	체육	효열	근로	언론
2006	55	4	9	5	1	6	18	4	2	5	1
2005	70	-	7	6	5	6	32	3	9	2	-
2004	89	-	14	6	7	6	34	7	9	6	-

- 민간보조사업 전환 시 시상금 지급은 가능하나 도지사 명의 및 공동 명의 표창 불가
 - 민간명의 표창시 “道 최고의 상”으로서의 위상 저하 우려
- 수상 분야 세분화 및 과다로 분야 중복 논쟁

제 3 장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조사분석 결과

- 제 1 절 각 설문에 대한 빈도분석
- 제 2 절 조사 대상별 교차분석
- 제 3 절 인지도별 교차분석

제3장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조사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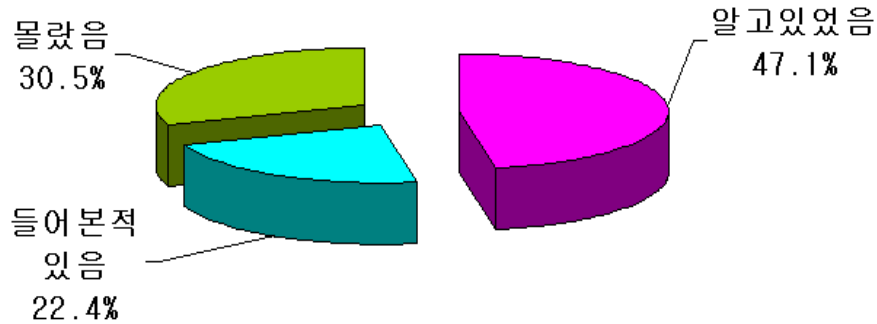
제1절 각 설문에 대한 빈도 분석

1.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에 대한 인지도

- ▶ 조사 대상자에게 대상에 대한 시상 사실에 대해 이전에도 알고 있었는가에 대해 설문
- ▶ 이에 대해 응답자의 47.1%(1,401명)는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22.4%(665명)는 “들어 본 적이 있었다”, 30.5%(906명)는 “몰랐다”고 응답(이하 <표 3-1> 및 <그림 3-1> 참조)
- ▶ 이러한 사실은 결국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이 이름에 걸맞지 않게도민 전체가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온 시상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결과로 이에 대한 홍보 전략의 강구가 필요함

<표 3-1>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에 대한 인지도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알고 있었음	1401	47.1	47.1	47.1
	들어 본적 있음	665	22.4	22.4	69.5
	몰랐음	906	30.5	30.5	100.0
	합 계	2972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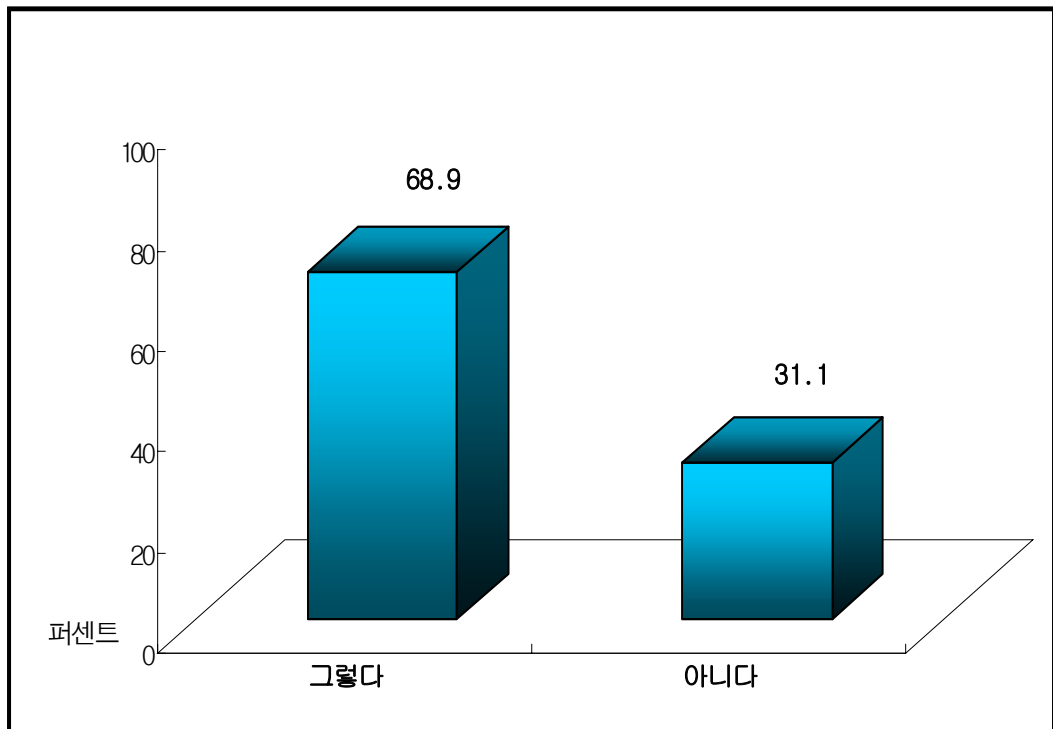
<그림 3-1>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에 대한 인지도

2.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대표성

- ▶ 대상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들어 본 적이 있는 응답자에게 대상이 명실상부하게 전북을 대표하는 상인가에 대해 설문
- ▶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가운데 유효 응답자 68.9%는 그렇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31.1%는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음(이하 <표 3-2> 및 <그림 3-2> 참조)

<표 3-2>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대표성에 대한 견해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그렇다	521	17.5	68.9	68.9
	아니다	235	7.9	31.1	100.0
	합 계	756	25.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216	74.6		
합 계		2972	100.0		



<그림 3-2>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대표성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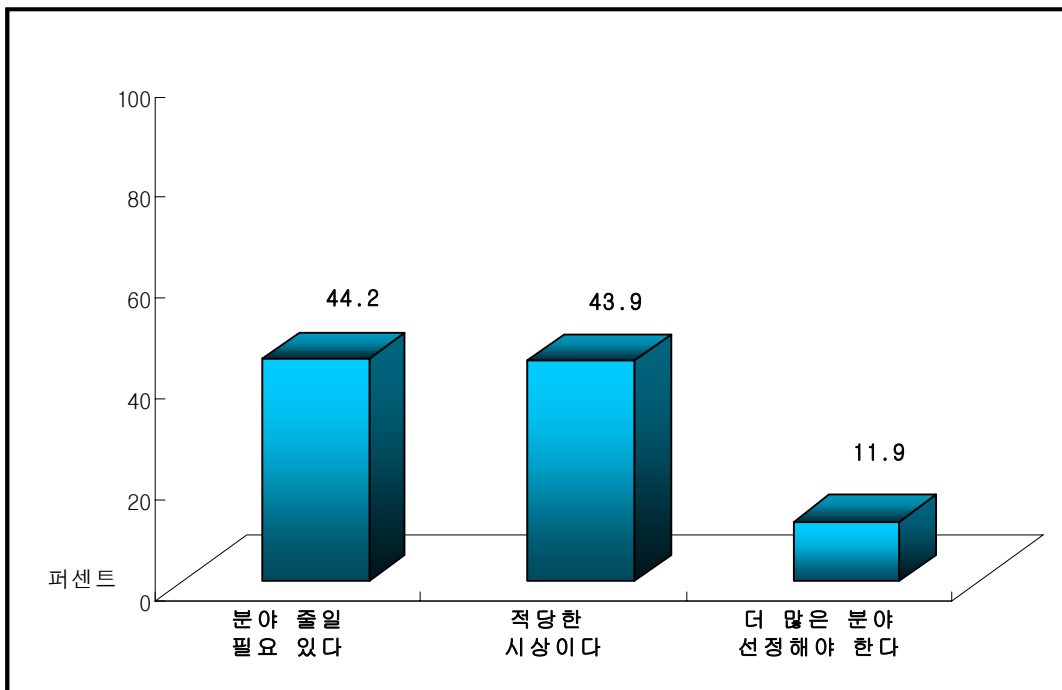
3.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 분야의 증감

- ▶ 현재 대상은 10개 분야(경제, 문화예술, 학술, 상공업, 농림수산, 공익, 체육, 효열, 근로, 언론)로 시상하고 있음
- ▶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10개 시상 분야의 향후 증감에 대한 견해를 설문
 - 이에 대해 응답자의 44.2%(1,311명)는 “시상 분야가 너무 세분화 되어 있어 분야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응답(이하 <표 3-3> 및 <그림 3-3> 참조)
 - 43.9%(1,300명)는 “여러 분야에서 전북의 위상을 높이고 있어 적당한 시상이다”고 응답

- 또한 11.9%(353명)는 “더 많은 분야를 선정하여 시상해야 한다”고 응답

<표 3-3>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 분야의 증감에 대한 견해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분야 줄일 필요 있다	1311	44.1	44.2	44.2
	적당한 시상이다	1300	43.7	43.9	88.1
	더 많은 분야 선정해야 한다	353	11.9	11.9	100.0
	합 계	2964	99.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8	.3		
합 계		2972	100.0		



<그림 3-3>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 분야의 증감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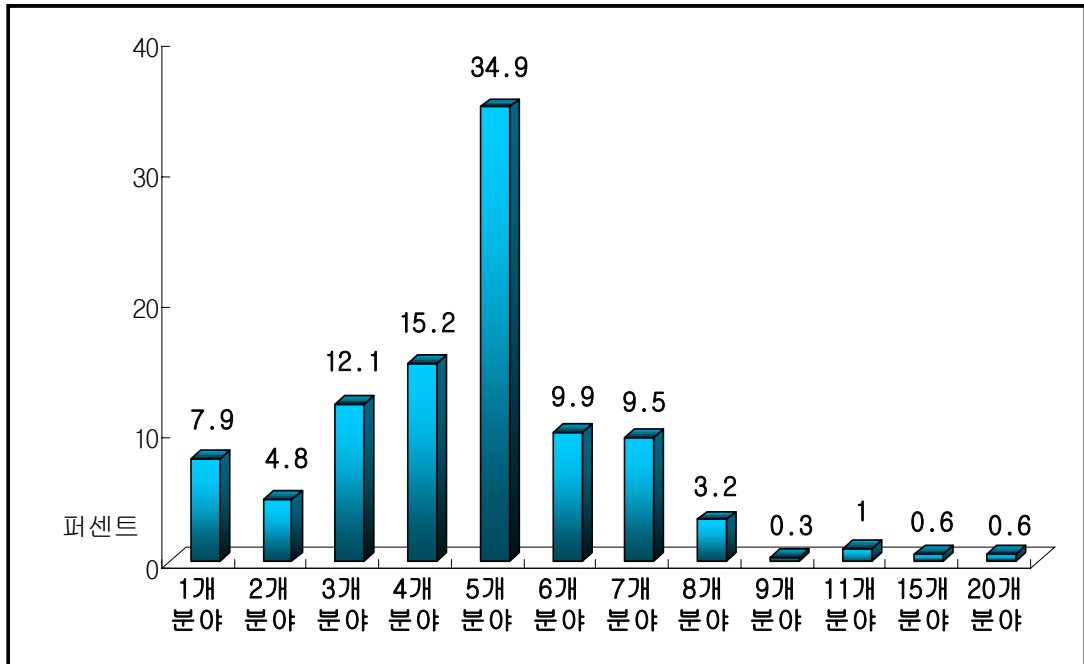
4.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적정 시상 분야

현 시상 분야에 대해 “너무 세분화 되어 있어 분야를 줄일 필요가 있다”와 “더 많은 분야를 선정하여 수상하여야 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대상 시상 분야를 증가하거나 축소하여 시상할 경우 몇 개 분야가 적정한가에 대해 설문

- ▶ 이에 대해 적극적 응답을 보인 315명 가운데 34.9%는 5개 분야, 15.2%는 4개 분야, 12.1%는 3개 분야 등으로 응답(이하 <표 3-4> 및 <그림 3-4> 참조)

<표 3-4>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적정 시상 분야에 대한 견해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1개 분야	25	.8	7.9	7.9
	2개 분야	15	.5	4.8	12.7
	3개 분야	38	1.3	12.1	24.8
	4개 분야	48	1.6	15.2	40.0
	5개 분야	110	3.7	34.9	74.9
	6개 분야	31	1.0	9.9	84.8
	7개 분야	30	1.0	9.5	94.3
	8개 분야	10	.3	3.2	97.5
	9개 분야	1	.0	.3	97.8
	11개 분야	3	.1	1.0	98.8
	15개 분야	2	.1	.6	99.4
	20개 분야	2	.1	.6	100.0
	합 계	315	10.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657	89.4		
합 계		2972	100.0		



<그림 3-4>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걱정 시장 분야에 대한 견해

⇒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걱정 시장 분야에 대한 세부 견해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증감과 관련하여 걱정시장 분야로 응답자들이 제시한 세부 견해를 순위별로 최소 10명 이상이 제시한 경우를 우선순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1순위 - 5개 분야 (34.9%), 2순위 - 4개 분야 (15.2%)
- ▶ 3순위 - 3개 분야 (12.1%), 4순위 - 6개 분야 (9.8%)
- ▶ 5순위 - 7개 분야 (9.5%), 6순위 - 1개 분야 (7.9%)
- ▶ 7순위 - 2개 분야 (4.8%), 8순위 - 8개 분야 (3.2%)

5.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 지급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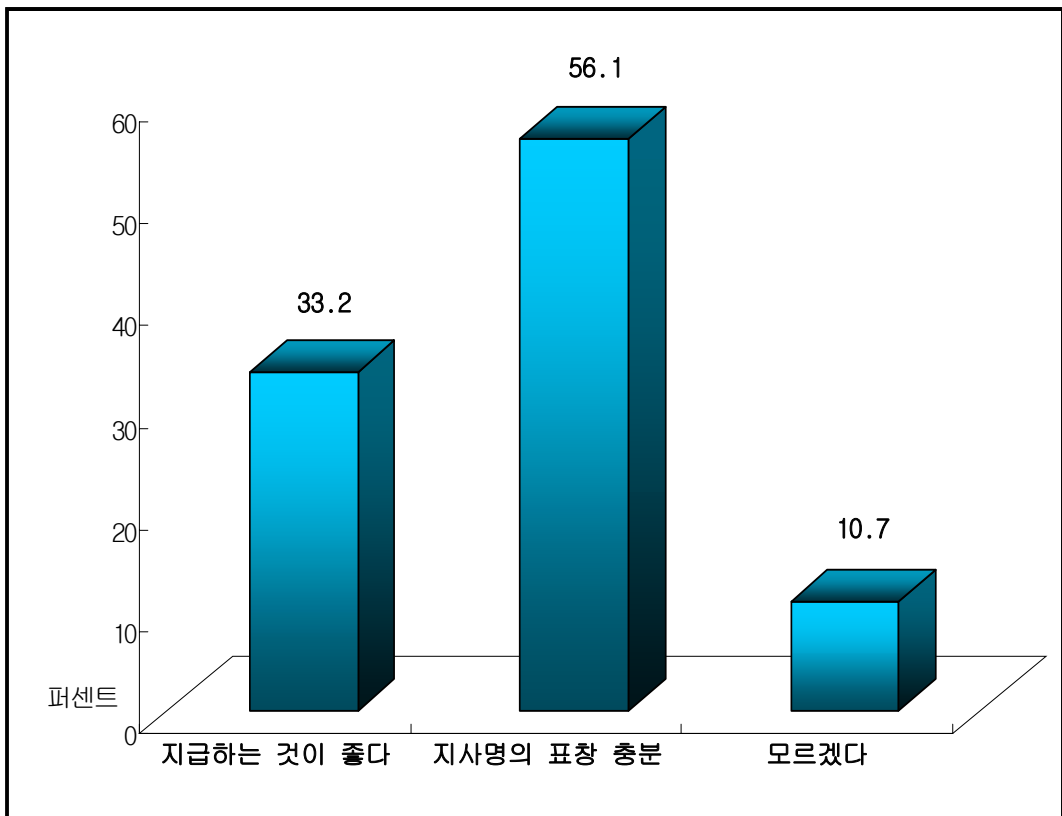
- ▶ 2005년 이전엔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은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 조례”에 의하여 전라북도에서 운영하였으며, 전북 도지사 명의의 상패와 메달 및 5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함
- ▶ 하지만,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시상금 지급이 금지되어 전북 도지사 명의의 상패와 메달만 수여함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현행법상 시상금 지급을 하고자 한다면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의 운영주체가 전라북도가 아닌 민간단체(또는 민간위원회)나 언론사 등이 운영주체가 되어야 함

- ▶ 이와 관련하여 시상금 지급을 위해 운영주체를 바꿔 전라북도(도지사)가 아닌 민간(사회)단체장 또는 언론사 대표 명의의 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설문
- ▶ 이에 대해 총 응답자의 56.1%(1,662명)는 “현행법상 시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해도 전라북도지사 명의의 표창 지급이 좋다.”에 응답(이하 <표 3-5> 및 <그림 3-5> 참조)
- ▶ 또한, 총 응답자의 33.2%(982명)는 “시상금 지급의 정도가 상의 대표성을 띠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상금 지급을 위해서 언론사 대표나 민간단체장(또는 위원장) 명의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에 응답
- ▶ 이는 결국,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전라북도 지사의 표창 자체가 무엇보다 의미 있는 시상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
 - 물론, 33.2%라는 비교적 높은 응답자들이 시상금 지급의 정도와 상의 대표성을 연계하여 시상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

<표 3-5>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 지급 유무에 대한 견해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지급하는 것이 좋다	982	33.0	33.2	33.2
	지사명의 표창 수상이 좋다	1662	55.9	56.1	89.3
	모르겠다	316	10.6	10.7	100.0
	합 계	2960	99.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2	.4		
합 계		2972	100.0		



<그림 3-5>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 지급 유무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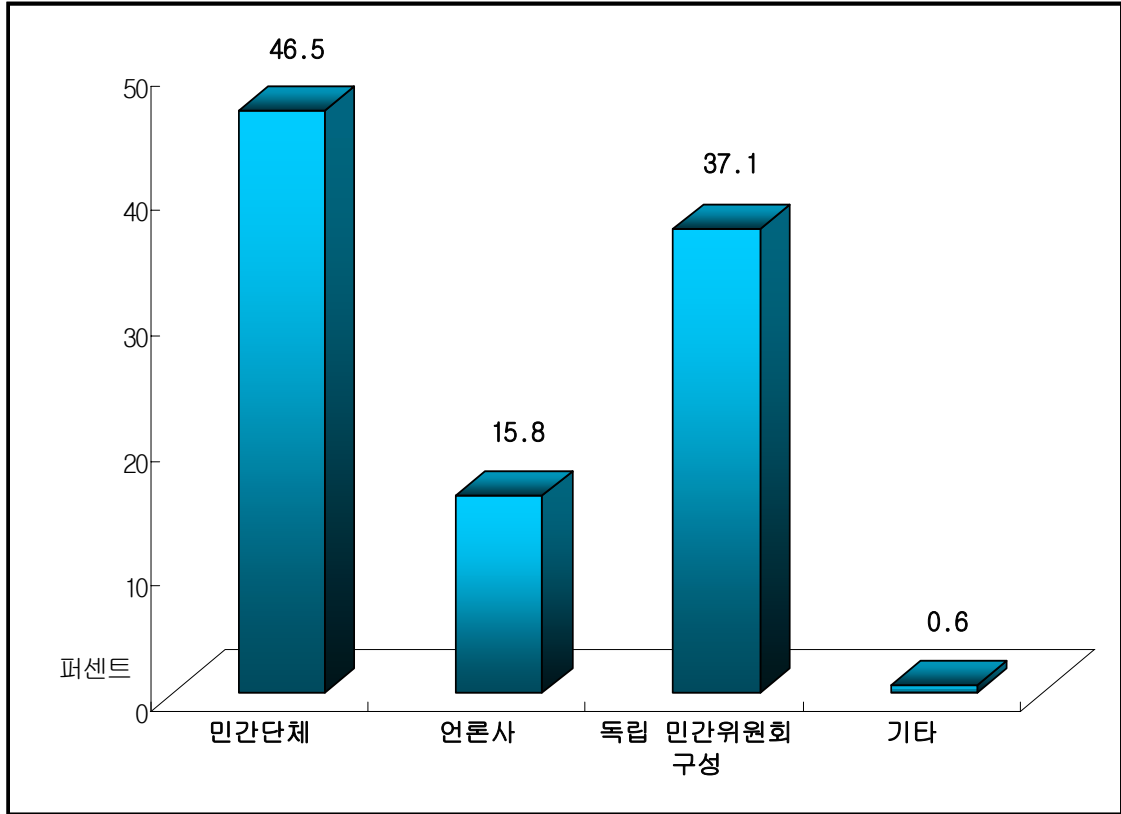
6.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운영주체

시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현행법상의 한계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주체를 전라북도 외로 할 경우에 대한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의 운영주체는 어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설문

- ▶ 이에 대해 앞에서 “시상금 지급의 정도가 상의 대표성을 띠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상금 지급을 위해서 언론사 대표나 민간단체장(또는 위원장) 명의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로 응답한 982명 가운데 979명이 유효한 응답을 하였음
- ▶ 유효 응답자 가운데 46.5%(455명)는 전라북도애향운동본부와 같은 민간단체를 운영주체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이하 <표 3-6> 및 <그림 3-6> 참조)
- ▶ 37.1%(363명)는 별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회”와 같은 별도 독립 민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 또한, 15.8%(155명)는 언론사를 운영주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

<표 3-6>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주체를 전라북도 외로 할 경우에 대한 견해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민간단체	455	15.3	46.5	46.5
	언론사	155	5.2	15.8	62.3
	독립 민간위원회 구성	363	12.2	37.1	99.4
	기타	6	.2	.6	100.0
	합 계	979	32.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993	67.1		
합 계		2972	100.0		



<그림 3-6>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주체를 전라북도 외로 할 경우에 대한 견해

7.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주체를 언론기관으로 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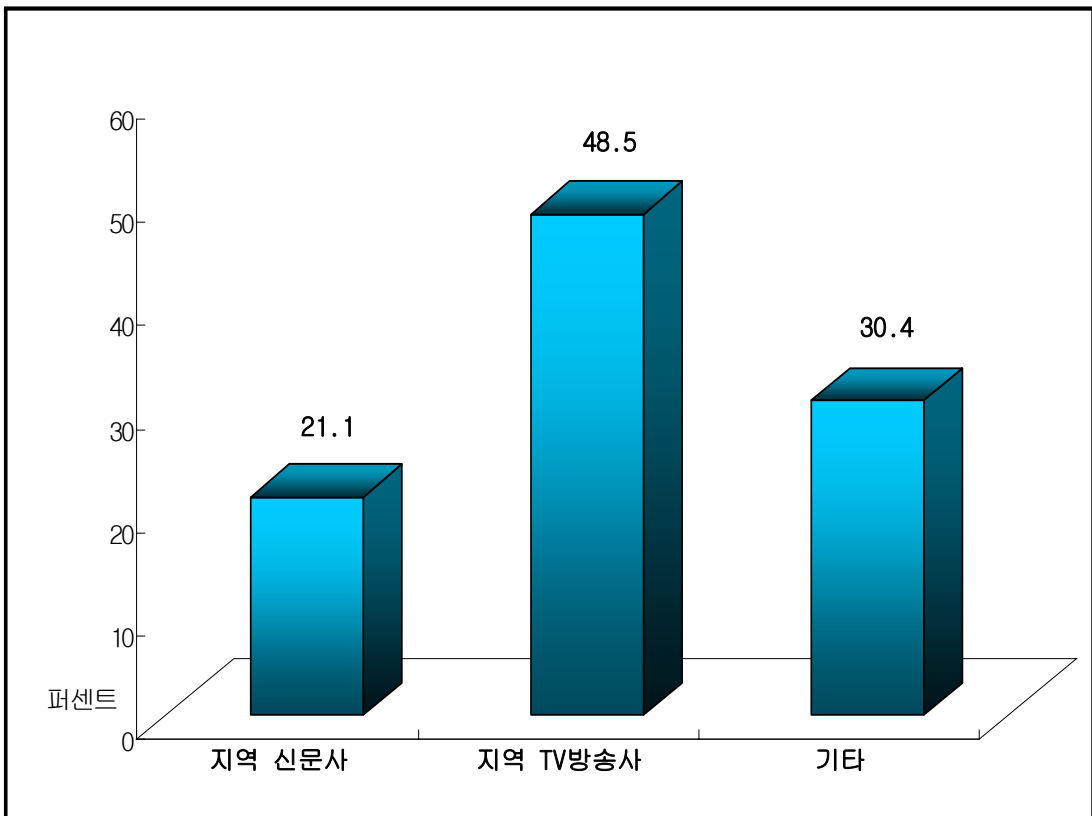
향후 운영과 홍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추구하는 맥락에서 조사 대상자 가운데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 지급의 정도가 상의 대표성을 띠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상금 지급을 위해서 전라북도 외 명의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의원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언론매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설문

- ▶ 이에 대해 237명의 유효 응답자 가운데 48.5%(115명)는 지역 TV방송사로 응답(이하 <표 3-7> 및 <그림 3-7> 참조)
- ▶ 21.1%(50명)는 지역 신문사로 응답
- ▶ 30.4%(72명)는 기타로 응답

<표 3-7>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주체를 언론기관으로 할 경우 견해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지역 신문사	50	1.7	21.1	21.1
	지역 TV방송사	115	3.9	48.5	69.6
	기타	72	2.4	30.4	100.0
	합 계	237	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735	92.0		
합 계		2972	100.0		

- ▶ <표 3-7>에서 기타로 응답한 경우는 대부분 별도의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내용을 제시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에서 특이성을 나타내고 있음
 - 우선 언론사만을 운영주체로 한 설문 내용의 문제점 등에 대해 합리적인 지적을 하고 있다는 점
 - 둘째, 언론매체가 아니라 “별도 민간위원회나 기구”를 통해 운영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강조하여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
 - 셋째, 언론사가 운영주체가 되어야 할 경우, 합리적인 대안으로 지역신문사와 지역 TV사가 공동으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는 점



<그림 3-7>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주체를 언론기관으로 할 경우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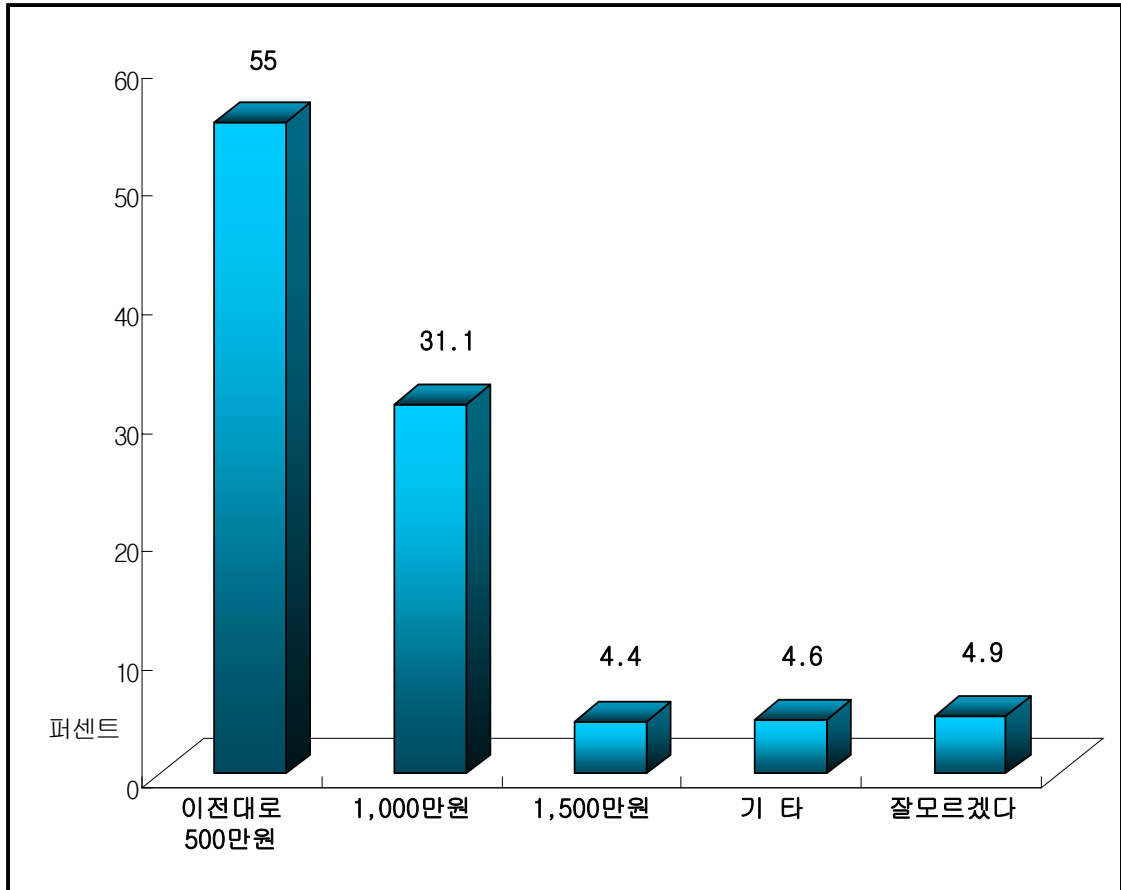
8. 향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 지급 시 적정 금액

향후 시상금 지급 시 적정한 방향 모색을 위해 “향후 시상금을 지급할 경우 시상금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설문

- ▶ 이에 대해 유효 응답자의 55.0%(826명)는 현행 이전대로 500만원 정도의 지급을 적정 금액으로 응답(이하 <표 3-8> 및 <그림 3-8> 참조)
- ▶ 31.1%(467명)은 1,000만원으로 응답
- ▶ 4.3%(65명)는 1,500만원으로까지 응답
- ▶ 특히, 기타로 응답한 4.6%(69명) 가운데는 시상금이 불필요하다는 의견 외에
 - 100만원 8명,
 - 300만원 1명,
 - 3,000만원 3명,
 - 5,000만원 5명,
 - 심지어 시상금을 1억원 정도 지급(3명)해야 한다는 의견 등으로 나타남

<표 3-8> 향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의 적정액에 대한 견해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이전대로 500만원	826	27.8	55.0	55.0
	1,000만원	467	15.7	31.1	86.1
	1,500만원	65	2.2	4.4	90.5
	기타	69	2.3	4.6	95.1
	잘모르겠다	74	2.5	4.9	100.0
	합 계	1501	50.5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471	49.5		
합 계		2972	100.0		



<그림 3-8> 향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의 적정액에 대한 견해

9.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의 수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차원에서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운영주체로 “(가칭)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운영위원의 수는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설문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매년 심사위원 수」

(단위 : 명)

위원 수 년도	매년 본 심사 위원 수	매년 분야별 심사위원 수							
		문화 예술	학술 언론 ^{*1}	상공업 [*] 2 (경제)	농림 수산 ^{*3}	공익	체육 ^{*4}	효열	근로 ^{*5}
1996~2006	15	7	7	7	7	7	7	7	7

*1 : 2006년도부터 학술과 언론을 분리하여 구성

*2 : 2002년까지 산업분야만 심사, 2006년부터는 경제 분야 포함하여 심사

*3 : 2002년까지는 산업분야에서 심사, 2003년부터 농림수산 분야로 하여 심사

*4 : 1996년 후보자 접수 1인뿐임으로 인해 위원회 미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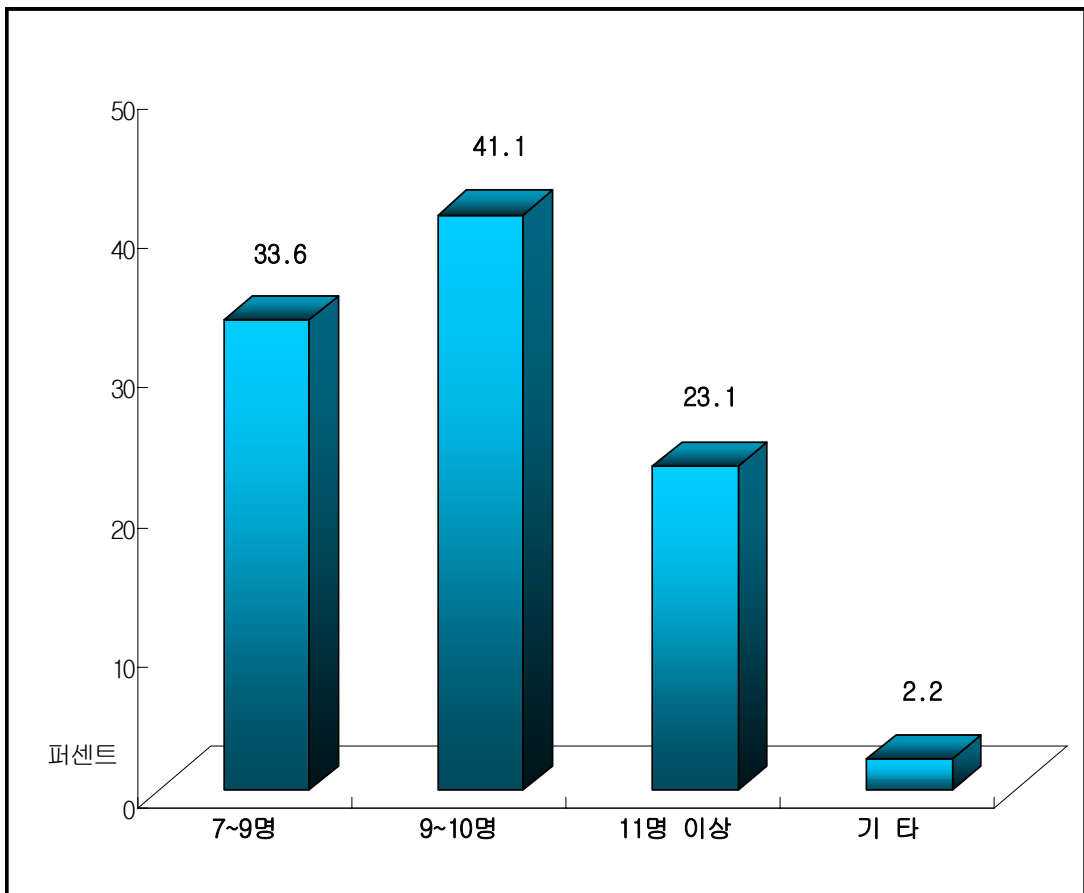
*5 : 근로부문 수상자 없음으로 인해 1998년부터 구성

- ▶ 이에 대해 유효 응답자 2,954명 가운데 **41.1%(1,214명)**는 9~1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응답(이하 <표 3-9> 및 <그림 3-9> 참조)
- ▶ 33.6%(994명)는 7~8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응답
- ▶ 23.1%(681명)는 11명 이상이 적당하다고 응답

<표 3-9>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의 수에 대한 견해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7~8명	994	33.4	33.6	33.6
	9~10명	1214	40.8	41.1	74.7
	11명 이상	681	22.9	23.1	97.8
	기타	65	2.2	2.2	100.0
	합 계	2954	99.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8	.6		
합 계		2972	100.0		

- ▶ 1순위로 41.1%가 9~10명 적당하다는 점은 결국 기존의 분야별 심사 위원 수의 증원을 통해 심사 기준을 강화하자는 결과로 해석이 가능
- ▶ 무엇보다도 2순위로 33.6%가 7~8명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7명 이상의 위원 구성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9>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의 수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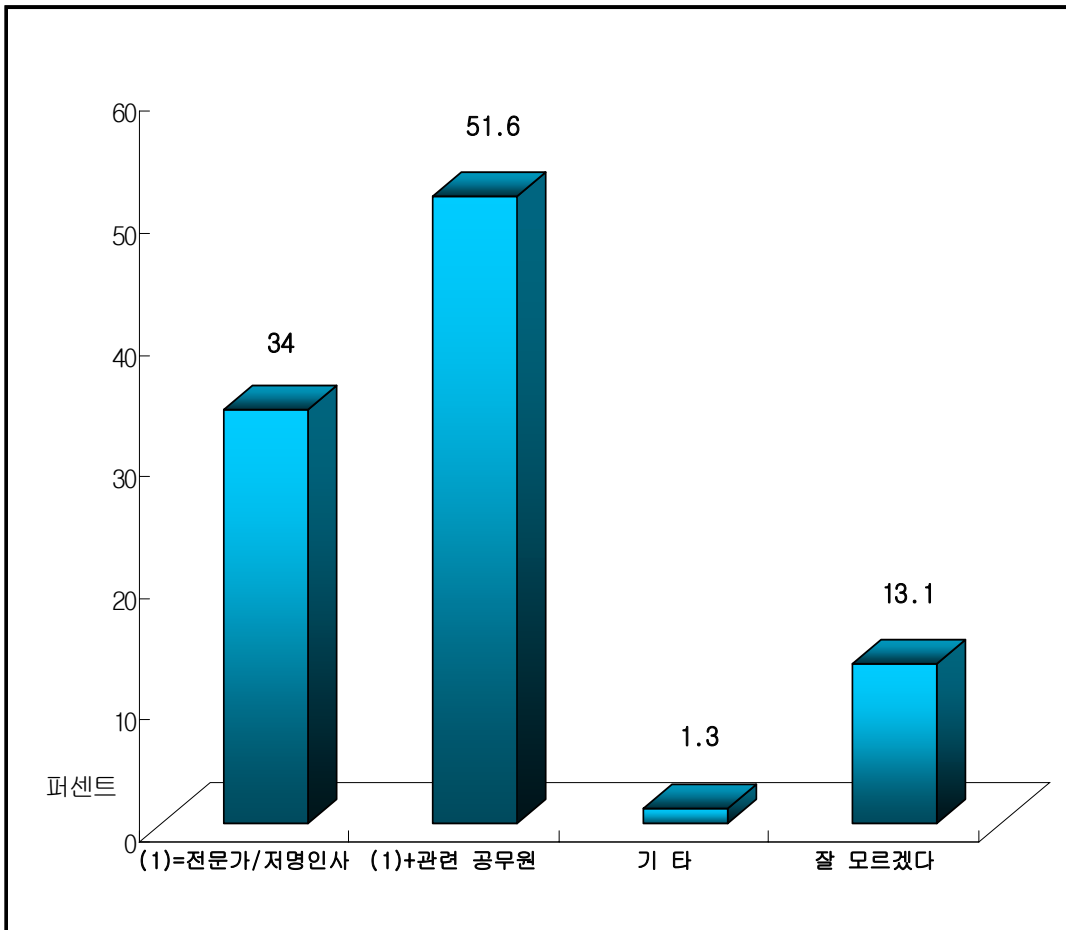
10.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의 구성 방법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향후 “(가칭)「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설문

- ▶ 이에 대해 51.6%(1,510명)는 “민간인 전문가(학계 포함)나 저명인사와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라고 응답함으로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전북 사회에서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저명인사, 관련 분야에 실무진 전체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냄(이하 <표 3-10> 및 <그림 3-10> 참조)
- ▶ 34.0%(996명)는 “시상 분야별로 1명씩 민간인 전문가(학계 포함)나 저명인사로만 구성 한다”로 응답하여 관련 공무원 배제하는 의견을 제시
- ▶ 이와 더불어 기타로 응답하거나 별도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기본적으로 공무원과 전문성이 없는 저명인사는 배제하되,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분야당 2~3명 혹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시상 분야 수에 따라 위원의 수를 신축적으로 적용하자는 의견(총 11명 제시)
 - 예) 시상분야가 4분야면 최소 8명에서 12명, 10분야라면 20명에서 30명
 - 분야 전문가와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저명인사는 물론, 각계각층의 직업군·연령군·지역군을 모집단으로 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무작위 추출에 의한 시민위원(혹은 도민위원)을 선출하여 구성하자는 의견(총 6명 제시)
 -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하되, 관련 부처 공무원은 1인만 실무를 전담하는 차원에서 참여시키는 의견(총 3명 제시)
 - 분야별로 모든 위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별도의 운영위원회 구성은 세금 낭비이기에 구성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총 3명 제시)
 - 별도의 조직 구성보다는 지역혁신협의회 조직 중에서 분야별로 담당 운영하자는 의견(총 1명 제시)

<표 3-10>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 구성 방법에 대한 견해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1: 민간인 전문가나 저명인사	996	33.5	34.0	34.0
	1에 관련공무원 포함	1510	50.8	51.6	85.6
	기타	37	1.2	1.3	86.9
	잘 모르겠다	385	13.0	13.1	100.0
	합 계	2928	98.5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4	1.5		
합 계		2972	100.0		



<그림 3-10>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 구성 방법에 대한 견해

제2절 조사 대상별 교차분석

1. 조사 대상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에 대한 인지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의 유무에 대해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도 알았는가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 대상별로 교차분석하였을 때, 매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남(이하 <표 3-11> 참조)

- ▶ 즉, 일반도민과 전문가의 경우 대상 자체를 알고 있었던 비율은 각각 41.9%와 41.5%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도와 14개 시·군 행정 공무원의 경우는 67.3%, 도·시·군 의원들의 경우도 69.1%를 나타냄으로써 두 집단의 현실 문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최소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특히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생각하였을 때 이번 조사의 경우는 여론조사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홍보적 기능면에서의 효과도 크게 고려할 수 있음

<표 3-11> 대상에 대한 조사 대상별 인지도

구 분			인지도			전체
			알고 있었음	들어 본적 있음	몰랐음	
조사 대상	일반도민	빈도	878	443	772	2093
		조사대상의 %	41.9%	21.2%	36.9%	100.0%
		전체 %	29.5%	14.9%	26.0%	70.4%
	전문가	빈도	115	78	84	277
		조사대상의 %	41.5%	28.2%	30.3%	100.0%
		전체 %	3.9%	2.6%	2.8%	9.3%
	행정 공무원	빈도	303	109	38	450
		조사대상의 %	67.3%	24.2%	8.4%	100.0%
		전체 %	10.2%	3.7%	1.3%	15.1%
	도/시/군 의원	빈도	105	35	12	152
		조사대상의 %	69.1%	23.0%	7.9%	100.0%
		전체 %	3.5%	1.2%	.4%	5.1%
전체	빈도	1401	665	906	2972	
	조사대상의 %	47.1%	22.4%	30.5%	100.0%	
	전체 %	47.1%	22.4%	30.5%	100.0%	

구 분	값	자유도	유의확률
Pearson χ^2	199.769	6	.000

2. 조사 대상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에 대한 대표성 인정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들어 본 적이 있는 응답자에게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이 명실상부하게 전북을 대표하는 상인가에 대하여 각 조사대상별로 교차분석하였을 때,¹⁾ 매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남(이하 <표 3-12> 참조)

- ▶ 즉,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대표성에 대해 도·시·군 의원들의 경우 77.0%가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 공무원의 경우 71.4%, 전문가의 경우 59.4%로 나타나 각 조사대상별 차별성을 나타냄

<표 3-12> 조사 대상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에 대한 대표성 인정도

구 분			대표성		전체
			그렇다	아니다	
조사 대상	전문가	빈도	130	89	219
		조사대상의 %	59.4%	40.6%	100.0%
		전체 %	17.2%	11.8%	29.0%
	행정 공무원	빈도	284	114	398
		조사대상의 %	71.4%	28.6%	100.0%
		전체 %	37.6%	15.1%	52.6%
	도/시/군 의원	빈도	107	32	139
		조사대상의 %	77.0%	23.0%	100.0%
		전체 %	14.2%	4.2%	18.4%
전체	빈도	521	235	756	
	조사대상의 %	68.9%	31.1%	100.0%	
	전체 %	68.9%	31.1%	100.0%	

구분	값	자유도	유의확률
Pearson χ^2	14.659	2	.001

1) 일반도민의 경우, ARS 조사기법 상 난점으로 인해 설문조사 항목에서 제외함.

3. 조사대상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분야 증감에 대한 견해

현재 10개 분야(경제, 문화예술, 학술, 상공업, 농림수산, 공익, 체육, 효열, 근로, 언론)로 시상하고 있는 분야의 향후 증감에 대한 견해를 조사 대상별로 교차분석하였을 때, 매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남(이하 <표 3-13> 참조)

- ▶ 즉, 전문가(52.3%), 행정공무원(49.9%) 및 도·시·군 의원(63.8%)의 경우는 “적당한 시상”이라는 점에 제일 높은 응답률을 반영하고 있으며, 일반도민의 경우는 46.2%가 “분야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응답
 - 그러나 일반도민의 경우는 “분야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응답자 전체 1,311명 가운데 966명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또한 고려해야 함

<표 3-13>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 분야의 증감에 대한 견해

구 분			시상분야			전체
			분야 줄일 필요 있다	적당한 시상이다	더 많은 분야 선정해야 한다	
조사 대상	일반도민	빈도	966	838	289	2093
		조사대상의 %	46.2%	40.0%	13.8%	100.0%
		전체 %	32.6%	28.3%	9.8%	70.6%
	전문가	빈도	103	145	29	277
		조사대상의 %	37.2%	52.3%	10.5%	100.0%
		전체 %	3.5%	4.9%	1.0%	9.3%
	행정 공무원	빈도	196	222	27	445
		조사대상의 %	44.0%	49.9%	6.1%	100.0%
		전체 %	6.6%	7.5%	.9%	15.0%
	도/시/군 의원	빈도	46	95	8	149
		조사대상의 %	30.9%	63.8%	5.4%	100.0%
		전체 %	1.6%	3.2%	.3%	5.0%
전체	빈도	1311	1300	353	2964	
	조사대상의 %	44.2%	43.9%	11.9%	100.0%	
	전체 %	44.2%	43.9%	11.9%	100.0%	

구분	값	자유도	유의확률
Pearson χ^2	64.451	6	.000

4. 조사 대상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걱정 시상 분야에 대한 견해

현 시상 분야를 증가하거나 축소하여 시상할 경우 몇 개 분야가 적정한가에 대해 교차분석하였을 때, 조사대상별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남(이하 <표 3-14> 참조)

- ▶ 즉, 현재 수상 분야에 대해 증감 의견을 나타낸 응답자들은 조사 대상별로 5개 분야에 대해 일순위의 일치된 견해를 나타냈으며, 이를 중심으로 약간의 차이를 개진하였음

<표 3-14> 조사 대상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걱정 시상 분야에 대한 견해

구 분		조사대상			전체	
		전문가	행정 공무원	도/시/군 의원		
몇 개 분야	1개 분야	빈도	7	14	4	25
		조사대상의 %	7.3%	7.9%	9.5%	7.9%
	2개 분야	빈도	4	6	5	15
		조사대상의 %	4.2%	3.4%	11.9%	4.8%
	3개 분야	빈도	18	17	3	38
		조사대상의 %	18.8%	9.6%	7.1%	12.1%
	4개 분야	빈도	20	24	4	48
		조사대상의 %	20.8%	13.6%	9.5%	15.2%
	5개 분야	빈도	32	68	10	110
		조사대상의 %	33.3%	38.4%	23.8%	34.9%
	6개 분야	빈도	5	23	3	31
		조사대상의 %	5.2%	13.0%	7.1%	9.8%
	7개 분야	빈도	5	15	10	30
		조사대상의 %	5.2%	8.5%	23.8%	9.5%
	8개 분야	빈도	3	5	2	10
		조사대상의 %	3.1%	2.8%	4.8%	3.2%
	9개 분야	빈도		1		1
		조사대상의 %		.6%		.3%
	11개 분야	빈도	1	2		3
		조사대상의 %	1.0%	1.1%		1.0%
15개 분야	빈도		2		2	
	조사대상의 %		1.1%		.6%	
20개 분야	빈도	1		1	2	
	조사대상의 %	1.0%		2.4%	.6%	
전체	빈도	96	177	42	315	
	조사대상의 %	100.0%	100.0%	100.0%	100.0%	

구분	값	자유도	유의확률
Pearson χ^2	37.990	22	.018

5. 조사 대상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 지급에 대한 견해

시상금 지급을 위해 운영주체를 바꿔 전라북도(도지사)가 아닌 민간(사회) 단체장 또는 언론사 대표 명의의 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응답 결과를 교차분석하였을 때, 매우 유의미한 결과 나타남(이하 <표 3-15> 참조)

- ▶ 즉, 우선 “지사명의 표창만으로 좋다”는 응답 순위는 행정 공무원 64.3%, 전문가 59.2%, 의원 57.1%, 일반도민 53.9% 등으로 나타남
- ▶ 이에 반해,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도 의원 42.9%, 전문가 40.8% 등으로 나타나 시상금 지급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찬성 의견을 개진하였음

<표 3-15> 조사 대상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 지급에 대한 견해

구 분		시상유무			전체	
		지급하는 것이 좋다	지사명의 표창만으 로 좋다	잘 모르겠다		
조사 대상	일반도민	빈도	648	1129	316	2093
		조사대상의 %	31.0%	53.9%	15.1%	100.0%
		전체 %	21.9%	38.1%	10.7%	70.7%
	전문가	빈도	113	164		277
		조사대상의 %	40.8%	59.2%		100.0%
		전체 %	3.8%	5.5%		9.4%
	행정 공무원	빈도	158	285		443
		조사대상의 %	35.7%	64.3%		100.0%
		전체 %	5.3%	9.6%		15.0%
	도/시/군 의원	빈도	63	84		147
		조사대상의 %	42.9%	57.1%		100.0%
		전체 %	2.1%	2.8%		5.0%
전체	빈도	982	1662	316	2960	
	조사대상의 %	33.2%	56.1%	10.7%	100.0%	
	전체 %	33.2%	56.1%	10.7%	100.0%	

구분	값	자유도	유의확률
Pearson χ^2	151.412	6	.000

6. 조사 대상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운영주체에 대한 견해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주체를 전라북도 외로 할 경우 운영주체에 대한 견해를 조사 대상별로 교차분석하였을 때, 매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남 (이하 <표 3-16 > 참조)

- ▶ 즉, 운영주체를 독립된 민간위원회 구성을 통해 하자는 견해는 전문가가 61.1%, 지방의원 49.2%, 행정공무원 40.6%, 일반도민 30.9% 순으로 나타남
- ▶ 또한, 민간단체를 운영주체로 하자는 견해는 행정공무원 51.6%, 일반도민 48.6%, 지방의원 46.0% 순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별로 의미있는 차별성을 나타냄

<표 3-16> 조사 대상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주체에 대한 견해

구 분			운영주체				전체
			민간단체	언론사	독립 민간 위원회 구성	기타	
조사 대상	일반도민	빈도	315	133	200		648
		조사대상의 %	48.6%	20.5%	30.9%		100.0%
		전체 %	32.2%	13.6%	20.4%		66.2%
	전문가	빈도	31	11	69	2	113
		조사대상의 %	27.4%	9.7%	61.1%	1.8%	100.0%
		전체 %	3.2%	1.1%	7.0%	.2%	11.5%
	행정 공무원	빈도	80	10	63	2	155
		조사대상의 %	51.6%	6.5%	40.6%	1.3%	100.0%
		전체 %	8.2%	1.0%	6.4%	.2%	15.8%
	도/시/군 의원	빈도	29	1	31	2	63
		조사대상의 %	46.0%	1.6%	49.2%	3.2%	100.0%
		전체 %	3.0%	.1%	3.2%	.2%	6.4%
전체	빈도	455	155	363	6	979	
	조사대상의 %	46.5%	15.8%	37.1%	.6%	100.0%	
	전체 %	46.5%	15.8%	37.1%	.6%	100.0%	

구분	값	자유도	유의확률
Pearson χ^2	80.346	9	.000

7. 조사 대상별 운영주체를 언론기관으로 할 경우에 대한 견해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 지급을 위해서 전라북도 외 명의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전문가와 행정공무원 및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언론매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조사 대상별로 교차분석하였을 때,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냄 (이하 <표 3-17> 참조)

- ▶ 즉, 지역 TV방송사에 대해서는 지방의원 65.5%, 행정공무원 58.5%, 전문가 36.0% 순으로 나타났으며,
- ▶ 지역 신문사를 운영주체로 하자는 견해는 역순으로 전문가 22.8%, 행정공무원 21.3%, 지방의원 13.8% 순으로 나타나 언론기관을 운영주체로 할 경우에 대한 상이한 의견 패턴을 나타냄

<표 3-17>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주체를 언론기관으로 할 경우 견해

구 분			언론기관			전체
			지역 신문사	지역 TV방송사	기타	
조사 대상	전문가	빈도	26	41	47	114
		조사대상의 %	22.8%	36.0%	41.2%	100.0%
		전체 %	11.0%	17.3%	19.8%	48.1%
	행정 공무원	빈도	20	55	19	94
		조사대상의 %	21.3%	58.5%	20.2%	100.0%
		전체 %	8.4%	23.2%	8.0%	39.7%
	도/시/군 의원	빈도	4	19	6	29
		조사대상의 %	13.8%	65.5%	20.7%	100.0%
		전체 %	1.7%	8.0%	2.5%	12.2%
전체	빈도	50	115	72	237	
	조사대상의 %	21.1%	48.5%	30.4%	100.0%	
	전체 %	21.1%	48.5%	30.4%	100.0%	

구분	값	자유도	유의확률
Pearson χ^2	16.767	4	.002

8. 조사 대상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 지급 시 적정 금액

향후 시상금 지급 시 적정한 방향 모색을 위해 “향후 시상금을 지급할 경우 시상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에 대해 조사 대상별로 교차분석하였을 때, 매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남(이하 <표 3-18> 참조)

- ▶ 먼저 이전대로 500만원으로 지급하자는 의견 제시는 지방의원 64.8%, 일반도민 60.6%, 행정공무원 51.2%, 전문가 42.8% 순으로 나타남
- ▶ 특히, 1,000만원으로 지급하자는 의견 제시에서 전문가 44.6%와 행정공무원 35.2%는 평균 31.1%보다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경우는 오히려 기존 500만원 지급보다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표 3-18> 조사 대상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 지급 시 적정 금액

구 분			시상금액					전체
			이전대로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	잘 모르겠다	
조사 대상	일반도민	빈도	393	152	29		74	648
		조사대상의 %	60.6%	23.5%	4.5%		11.4%	100.0%
		전체 %	26.2%	10.1%	1.9%		4.9%	43.2%
	전문가	빈도	118	123	9	26		276
		조사대상의 %	42.8%	44.6%	3.3%	9.4%		100.0%
		전체 %	7.9%	8.2%	.6%	1.7%		18.4%
	행정 공무원	빈도	221	152	25	34		432
		조사대상의 %	51.2%	35.2%	5.8%	7.9%		100.0%
		전체 %	14.7%	10.1%	1.7%	2.3%		28.8%
	도/시/군 의원	빈도	94	40	2	9		145
		조사대상의 %	64.8%	27.6%	1.4%	6.2%		100.0%
		전체 %	6.3%	2.7%	.1%	.6%		9.7%
전체	빈도	826	467	65	69	74	1501	
	조사대상의 %	55.0%	31.1%	4.3%	4.6%	4.9%	100.0%	
	전체 %	55.0%	31.1%	4.3%	4.6%	4.9%	100.0%	

구분	값	자유도	유의확률
Pearson χ^2	203.974	12	.000

9. 조사 대상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의 수에 대한 견해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차원에서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운영주체로 “(가칭)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운영위원의 수는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조사 대상별로 교차분석하였을 때, 매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남(이하 <표 3-19> 참조)

- ▶ 조사 대상별 전체적으로 9~10명 수준에서 운영위원의 수를 구성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의견을 나타냄(전문가 43.6%, 지방의원 42.6%, 행정공무원 41.3%, 일반도민 40.6% 순)
- ▶ 다른 조사 대상의 경우엔 11명 이상을 2순위로 응답한 반면, 일반도민의 경우엔 38.7%가 2순위로 7~8명 수준의 운영위원 구성 의견을 개진

<표 3-19> 조사 대상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의 수에 대한 견해

구 분			운영위원의 수				전체
			7~8명	9~10명	11명 이상	기타	
조사 대상	일반도민	빈도	809	850	434		2093
		조사대상의 %	38.7%	40.6%	20.7%		100.0%
		전체 %	27.4%	28.8%	14.7%		70.9%
	전문가	빈도	60	120	73	22	275
		조사대상의 %	21.8%	43.6%	26.5%	8.0%	100.0%
		전체 %	2.0%	4.1%	2.5%	.7%	9.3%
	행정 공무원	빈도	92	181	134	31	438
		조사대상의 %	21.0%	41.3%	30.6%	7.1%	100.0%
		전체 %	3.1%	6.1%	4.5%	1.0%	14.8%
	도/시/군 의원	빈도	33	63	40	12	148
		조사대상의 %	22.3%	42.6%	27.0%	8.1%	100.0%
		전체 %	1.1%	2.1%	1.4%	.4%	5.0%
전체	빈도	994	1214	681	65	2954	
	조사대상의 %	33.6%	41.1%	23.1%	2.2%	100.0%	
	전체 %	33.6%	41.1%	23.1%	2.2%	100.0%	

구분	값	자유도	유의확률
Pearson χ^2	231.187	9	.000

특히,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시상 분야의 증감에 대한 의견 개진 결과를 운영위원의 수에 대한 의견 개진과 교차분석하였을 때도 매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남(이하 <표 3-20> 참조)

- ▶ 즉, 현재 시상 분야가 “적당한 시상이다”와 “더 많은 분야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응답자들의 경우에 각기 44.8%와 39.4%가 9~10명의 운영위원 구성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 ▶ 또한, 응답자들이 매우 유의미한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사례로 “분야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한 응답자들의 경우엔 40.5%가 7~8명 수준으로 운영위원 수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 ▶ 이와 관련하여 “더 많은 분야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응답자들의 경우도 34.6%(2순위)가 11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표 3-20> 시상 분야 증감 의견 대비 운영위원의 수에 대한 견해

구분			운영위원의 수				전체
			7~8명	9~10명	11명 이상	기타	
시상 분야	분야 줄일 필요 있다	빈도	528	495	252	29	1304
		시상분야의 %	40.5%	38.0%	19.3%	2.2%	100.0%
		전체 %	17.9%	16.8%	8.5%	1.0%	44.2%
	적당한 시상이다	빈도	382	578	306	25	1291
		시상분야의 %	29.6%	44.8%	23.7%	1.9%	100.0%
		전체 %	13.0%	19.6%	10.4%	.8%	43.8%
	더 많은 분야 선정해야 한다	빈도	81	139	122	11	353
		시상분야의 %	22.9%	39.4%	34.6%	3.1%	100.0%
		전체 %	2.7%	4.7%	4.1%	.4%	12.0%
전체		빈도	991	1212	680	65	2948
		시상분야의 %	33.6%	41.1%	23.1%	2.2%	100.0%
		전체 %	33.6%	41.1%	23.1%	2.2%	100.0%

구분	값	자유도	유의확률
Pearson χ^2	74.242	6	.000

10. 조사 대상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의 구성 방법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향후 “(가칭)「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해 조사 대상별로 교차분석하였을 때, 매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남(이하 <표 3-21> 참조)

- ▶ 즉, 운영위원을 “민간인 전문가(학계포함)나 저명인사와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는 의견에 행정공무원 55.5%와 일반도민 52.2%를 나타냄
- ▶ 반면에 전문가의 경우엔 “공무원을 제외”하는 위원 구성에 대해 49.6%, 공무원 포함 구성에 대해 42.4%를 나타냄
- ▶ 특히, 지방의원의 경우엔 매우 중립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공무원 포함” 구성과 “공무원 제외” 구성에 대해 똑같이 49.0%를 나타냄

<표 3-21>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 구성 방법에 대한 견해

구 분		위원구성				전체	
		1: 민간인 전문가나 저명인사	1에 관련공무원 포함	기타	잘 모르겠다		
조사 대상	일반도민	빈도	616	1092		385	2093
		조사대상의 %	29.4%	52.2%		18.4%	100.0%
		전체 %	21.0%	37.3%		13.1%	71.5%
	전문가	빈도	137	117	22		276
		조사대상의 %	49.6%	42.4%	8.0%		100.0%
		전체 %	4.7%	4.0%	.8%		9.4%
	행정 공무원	빈도	173	231	12		416
		조사대상의 %	41.6%	55.5%	2.9%		100.0%
		전체 %	5.9%	7.9%	.4%		14.2%
	도/시/군 의원	빈도	70	70	3		143
		조사대상의 %	49.0%	49.0%	2.1%		100.0%
		전체 %	2.4%	2.4%	.1%		4.9%
전체	빈도	996	1510	37	385	2928	
	조사대상의 %	34.0%	51.6%	1.3%	13.1%	100.0%	
	전체 %	34.0%	51.6%	1.3%	13.1%	100.0%	

구분	값	자유도	유의확률
Pearson χ^2	342.972	9	.000

제3절 인지도별 교차분석

1.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에 대한 인지도별 대표성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에 대해 알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상에 대한 대표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해 교차분석하였을 때, 매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남(이하 <표 3-22> 참조)

- ▶ 즉,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에 대해 “알고 있었던 응답자”의 경우 상에 대한 대표성에 대해 73.4%가 매우 높게 인정하고 있으며, 26.6%만이 상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 이에 반해 단지 이전에 “들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경우엔 59.0%만이 대표성을 인정하고, 41.0%는 상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 이는 결국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실시에 대한 인지경로의 구축, 예를 들어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음

<표 3-22>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에 대한 인지도

구 분			대표성		전체
			그렇다	아니다	
인지도	알고 있었음	빈도	376	136	512
		인지도의 %	73.4%	26.6%	100.0%
		전체 %	51.6%	18.7%	70.2%
	들어 본적 있음	빈도	128	89	217
		인지도의 %	59.0%	41.0%	100.0%
		전체 %	17.6%	12.2%	29.8%
전체	빈도	504	225	729	
	인지도의 %	69.1%	30.9%	100.0%	
	전체 %	69.1%	30.9%	100.0%	

구 분	값	자유도	유의확률
Pearson χ^2	14.916	1	.000

2. 인지도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 분야에 대한 견해

현재 10개 분야(경제, 문화예술, 학술, 상공업, 농림수산, 공익, 체육, 효열, 근로, 언론)로 시상하고 있는 분야의 향후 증감에 대한 견해를 인지도별로 교차분석하였을 때, 매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남(이하 <표 3-23> 참조)

- ▶ 즉, 대상에 대해 알고 있었던 응답자들의 경우엔 “분야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49.5%를 보인 반면, 들어본 적이 있거나 몰랐던 경우로 갈수록 각기 분야를 줄일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이 각기 42.7%와 37.2%로 낮게 나타남
- ▶ “더 많은 분야를 선정해야 한다”는 응답률(알고 있었을 경우 7.6%, 들어 본 적이 있는 경우 11.2%, 몰랐을 경우 19.1%)에서는 인지도가 높을수록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 대조를 나타냄

<표 3-23> 인지도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 분야의 증감에 대한 견해

구 분			시상분야			전체
			분야 줄일 필요 있다	적당한 시상이다	더 많은 분야 선정해야 한다	
인지도	알고 있었음	빈도	691	599	106	1396
		인지도의 %	49.5%	42.9%	7.6%	100.0%
		전체 %	23.3%	20.2%	3.6%	47.1%
	들어 본적 있음	빈도	283	306	74	663
		인지도의 %	42.7%	46.2%	11.2%	100.0%
		전체 %	9.5%	10.3%	2.5%	22.4%
	몰랐음	빈도	337	395	173	905
		인지도의 %	37.2%	43.6%	19.1%	100.0%
		전체 %	11.4%	13.3%	5.8%	30.5%
전체		빈도	1311	1300	353	2964
		인지도의 %	44.2%	43.9%	11.9%	100.0%
		전체 %	44.2%	43.9%	11.9%	100.0%

구분	값	자유도	유의확률
Pearson χ^2	81.831	4	.000

3. 인지도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걱정 시장 분야에 대한 견해

현 시장 분야를 증가·축소하여 시장할 경우 몇 개 분야가 걱정항가에 대해 인지도별로 교차분석하였을 때, 매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남(이하 <표 3-24> 참조)

- ▶ 우선 가장 높은 선호 분야인 5개 분야에서 인지도간에 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인지도가 높을수록 5개 분야에 대한 선호 비율은 높게 나타남

<표 3-24> 인지도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걱정 시장 분야에 대한 견해

구 분		인지도			전체	
		알고 있었음	들어본적 있음	몰랐음		
몇 개 분야	1개 분야	빈도	17	6	2	25
		인지도의 %	8.3%	9.2%	4.4%	7.9%
	2개 분야	빈도	9	3	3	15
		인지도의 %	4.4%	4.6%	6.7%	4.8%
	3개 분야	빈도	19	8	11	38
		인지도의 %	9.3%	12.3%	24.4%	12.1%
	4개 분야	빈도	29	12	7	48
		인지도의 %	14.1%	18.5%	15.6%	15.2%
	5개 분야	빈도	75	21	14	110
		인지도의 %	36.6%	32.3%	31.1%	34.9%
	6개 분야	빈도	23	4	4	31
		인지도의 %	11.2%	6.2%	8.9%	9.8%
	7개 분야	빈도	21	6	3	30
		인지도의 %	10.2%	9.2%	6.7%	9.5%
	8개 분야	빈도	8	2		10
		인지도의 %	3.9%	3.1%		3.2%
	9개 분야	빈도	1			1
		인지도의 %	.5%			.3%
	11개 분야	빈도	1	2		3
		인지도의 %	.5%	3.1%		1.0%
15개 분야	빈도	2			2	
	인지도의 %	1.0%			.6%	
20개 분야	빈도		1	1	2	
	인지도의 %		1.5%	2.2%	.6%	
전체		빈도	205	65	45	315
		인지도의 %	100.0%	100.0%	100.0%	100.0%

구분	값	자유도	유의확률
Pearson χ^2	22.517	22	.429

4. 인지도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 지급에 대한 견해

시상금 지급을 위해 운영주체를 바꿔 전라북도(도지사)가 아닌 민간(사회) 단체장 또는 언론사 대표 명의의 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응답 결과를 인지도별로 교차분석하였을 때, 매우 유의미한 결과 나타남(이하 <표 3-25> 참조)

- ▶ “지사명의 표창만으로 좋다”는 응답 순위는 대상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즉, “지사명의 표창만으로 좋다”는 응답률은 “알고 있었음”의 경우 58.7%, “들어 본 적이 있음”의 경우 55.2%, “몰랐음”의 경우 52.9%의 응답률을 나타냄

<표 3-25> 조사 대상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 지급에 대한 견해

구 분			시상유무			전체
			지급하는 것이 좋다	지사명의 표창만으로 좋다	잘 모르겠다	
인지도	알고 있었음	빈도	512	818	63	1393
		인지도의 %	36.8%	58.7%	4.5%	100.0%
		전체 %	17.3%	27.6%	2.1%	47.1%
	들어 본적 있음	빈도	225	366	72	663
		인지도의 %	33.9%	55.2%	10.9%	100.0%
		전체 %	7.6%	12.4%	2.4%	22.4%
	몰랐음	빈도	245	478	181	904
		인지도의 %	27.1%	52.9%	20.0%	100.0%
		전체 %	8.3%	16.1%	6.1%	30.5%
전체		빈도	982	1662	316	2960
		인지도의 %	33.2%	56.1%	10.7%	100.0%
		전체 %	33.2%	56.1%	10.7%	100.0%

구분	값	자유도	유의확률
Pearson χ^2	142.415	4	.000

5. 인지도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 지급 시 적정 금액

향후 시상금 지급 시 적정한 방향 모색을 위해 “향후 시상금을 지급할 경우 시상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에 대해 인지도별로 교차분석하였을 때, 매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남(이하 <표 3-26> 참조)

- ▶ 먼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이전대로 500만원으로 지급” 의견을 제시한 경우 “알고 있었던 경우(52.0%)”이든,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59.4%)”이든, 또한 “몰랐던 경우(57.8%)”이든 모두 50% 이상의 응답률을 나타냄
- ▶ 특히, 1,000만원과 1,500만원을 합쳤을 때의 선호 비율은 인지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알고 있었을 경우 39.5%,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 33.1%, 몰랐던 경우 28.0%)

<표 3-26> 인지도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 지급 시 적정 금액

구 분			시상금액					전체
			이전대로 500만원	1,000 만원	1,500 만원	기타	잘 모르겠다	
인지도	알고 있었음	빈도	424	289	33	45	24	815
		인지도의 %	52.0%	<35.5%	+4.0%> =39.5%	5.5%	2.9%	100.0%
		전체 %	28.2%	19.3%	2.2%	3.0%	1.6%	54.3%
	들어 본적이 있음	빈도	212	103	15	15	12	357
		인지도의 %	59.4%	<28.9%	+4.2%> =33.1%	4.2%	3.4%	100.0%
		전체 %	14.1%	6.9%	1.0%	1.0%	.8%	23.8%
	몰랐음	빈도	190	75	17	9	38	329
		인지도의 %	57.8%	<22.8%	+5.2%> =28.0%	2.7%	11.6%	100.0%
		전체 %	12.7%	5.0%	1.1%	.6%	2.5%	21.9%
전체	빈도	826	467	65	69	74	1501	
	인지도의 %	55.0%	31.1%	4.3%	4.6%	4.9%	100.0%	
	전체 %	55.0%	31.1%	4.3%	4.6%	4.9%	100.0%	

구분	값	자유도	유의확률
Pearson χ^2	58.216	8	.000

6. 인지도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의 수에 대한 견해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차원에서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운영주체로 “(가칭)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운영위원의 수는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인지도별로 교차분석하였을 때, 매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남(이하 <표 3-27> 참조)

- ▶ 운영위원의 수에서 9~10명이 적당하다는 견해에서는 알고 있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엔 41.8%와 45.4%로 몰랐던 경우 36.9%보다 높게 나타남
- ▶ 특히, 인지도가 떨어지는 경우의 응답자 일수록 운영위원의 수를 7~8명 수준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알고 있었음 32.3%, 들어본 적이 있음 32.6%, 몰랐음 36.5%)
- ▶ 이러한 점은 인지도가 낮은 대상에 대해 몰랐던 응답자가 11명 이상의 운영위원 구성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률 25.6%를 나타낸 점에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표 3-27> 인지도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의 수에 대한 견해

구 분			위원의수				전체
			7~8명	9~10명	11명 이상	기타	
인지도	알고 있었음	빈도	448	580	318	42	1388
		인지도의 %	32.3%	41.8%	22.9%	3.0%	100.0%
		전체 %	15.2%	19.6%	10.8%	1.4%	47.0%
	들어 본적이 있음	빈도	216	301	132	14	663
		인지도의 %	32.6%	45.4%	19.9%	2.1%	100.0%
		전체 %	7.3%	10.2%	4.5%	.5%	22.4%
	몰랐음	빈도	330	333	231	9	903
		인지도의 %	36.5%	36.9%	25.6%	1.0%	100.0%
		전체 %	11.2%	11.3%	7.8%	.3%	30.6%
전체		빈도	994	1214	681	65	2954
		인지도의 %	33.6%	41.1%	23.1%	2.2%	100.0%
		전체 %	33.6%	41.1%	23.1%	2.2%	100.0%

구분	값	자유도	유의확률
Pearson χ^2	25.940	6	.000

7. 인지도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의 구성 방법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향후 “(가칭)「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해 인지도별로 교차분석하였을 때, 매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남²⁾(이하 <표 3-28> 참조)

- ▶ 즉, 운영위원을 “민간인 전문가(학계포함)나 저명인사와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는 의견에서 인지도가 높은 응답자의 경우엔 큰 차이는 아니다 해도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알고 있었음 57.6%, 들어본 적이 있음 59.5%, 몰랐음 62.6%
- ▶ 반면에 “공무원을 제외”하는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응답률이 나타남
 - 알고 있었음 41.0%, 들어본 적이 있음 38.9%, 몰랐음 36.0%

<표 3-28>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 구성 방법에 대한 견해

구 분		위원구성			전체	
		1: 민간인 전문가 거나 저명인사	1에 관련 공무원 포함	기타		
인지도	알고 있었음	빈도	527	741	18	1286
		인지도의 %	41.0%	57.6%	1.4%	100.0%
		전체 %	20.7%	29.1%	.7%	50.6%
	들어 본적 있음	빈도	221	338	9	568
		인지도의 %	38.9%	59.5%	1.6%	100.0%
		전체 %	8.7%	13.3%	.4%	22.3%
	몰랐음	빈도	248	431	10	689
		인지도의 %	36.0%	62.6%	1.5%	100.0%
		전체 %	9.8%	16.9%	.4%	27.1%
전체		빈도	996	1510	37	2543
		인지도의 %	39.2%	59.4%	1.5%	100.0%
		전체 %	39.2%	59.4%	1.5%	100.0%

구 분	값	자유도	유의확률
Pearson χ^2	4.793	4	.000

2) ARS 조사 시 기타에 의한 자유응답 처리가 불가능한 점에서 “잘 모르겠다”로 응답한 385명의 경우는 본 교차분석에서 제외하여 분석함.

제 4 장

정책 제언: 효율적 운영방안

- 제 1 절 수상 분야의 축소 방안
- 제 2 절 운영주체 이전 및 시상금 지급 방안
- 제 3 절 전북 최고의 상으로써의 위상 정립 방안

제4장 정책 제언 : 효율적 운영방안

제1절 수상 분야의 축소 방안

현재 10개 분야(경제, 문화예술, 학술, 상공업, 농림수산, 공익, 체육, 효열, 근로, 언론)로 시상하고 있는 시상분야의 증감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44.2%(1,311명)가 “시상 분야가 너무 세분화 되어 있어 분야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증가는 11.9%-353명)

이와 관련하여 현 시상 분야에 대해 “너무 세분화 되어 있어 분야를 줄일 필요가 있다”와 “더 많은 분야를 선정하여 수상하여야 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대상 시상 분야를 증가하거나 축소하여 시상할 경우 몇 개 분야가 적정한가에 대해 설문하였다.

- ▶ 이에 대해 34.9%는 5개 분야, 15.2%는 4개 분야, 12.1%는 3개 분야, 9.8%는 6개 분야, 9.5%는 7개 분야 등으로 응답하였다.
- ▶ 3개 분야에서 7개 분야에 이르는, 즉 10%대의 응답률에서 최고 35%대의 응답률 가운데 가장 많은 분야로 제시한 분야의 순위는,
 - (1) 경제·상공업 분야 160개, (2) 문화·예술 126개,
 - (3) 효열 분야 108개, (4) 체육 분야 77개,
 - (5) 공익 분야 75개, (6) 농림수산 분야 57개
 - (7) 학술 분야 51개, (8) 근로 분야 38개,
 - (9) 언론 분야 22개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10개 분야를 통합·축소하고자 한다면, 다음 순위 범주에서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한다.

※수상분야의 축소 시 우선 순위

순위	(1)	(2)	(3)	(4)	(5)	(6)	(7)
분야	경제 분야	문예 분야	효열 분야	체육 분야	공익 분야	농림수 산분야	학술언 론분야
	경제·상공업·근로	문화·예술	효 열	체육	공 익	농림수산	학술·언론

이를 현재는 물론이요, 향후 도정의 핵심이어야 할 경제살리기와 병행하여 대상의 각 명칭 앞에 “자랑스런 전북인”을 설정, 재 규정화하면 다음과 같다.

- (1) **경제 대상(경제·상공업·근로 분야)** : 일자리 창출과 첨단산업 및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한 자, 생산성을 높이고 신기술 개발·수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 사업장·기업체 등에 종사하면서 자기 직무에 정려하여 생산성 향상 또는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여 공적을 쌓은 자
- (2) **문예 대상(문화·예술 분야)** : 문학·미술·음악·연극·연예분야 등에서 활발한 연구 창작 발표 등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자
- (3) **효열 대상(효열 분야)** : 경노효친사상이 투철하고 미풍양속을 실천함으로써 주민의 칭송을 받는 효자·효부·열녀
- (4) **체육 대상(체육 분야)** : 도민 체위향상에 기여하였거나 체육인으로서 전북체육의 명예를 빛나게 한 자
- (5) **공익 대상(공익 분야)** : 공공사업·자선사업·기타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전북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향토를 위해 헌신적인 공적을 쌓은 자
- (6) **농림수산 대상(농림수산 분야)** : 농업·축산·수산·임업 분야에서 농림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 (7) **학술·언론 대상(학술·언론 분야)** : 학술·교육·언론 분야에서 향토발전에 기여한 자

제2절 운영주체 이전 및 시상금 지급 방안

1. 운영주체의 이전 : 과반 수 이상 반대

- ▶ 2005년 이전엔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 지급은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 조례”에 의하여 전라북도에서 운영하였으며, 전북 도지사 명의의 상패와 메달 및 5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함
- ▶ 하지만,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시상금 지급이 금지되어 전북 도지사 명의의 상패와 메달만 수여함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현행법상 시상금 지급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상금 지급을 위해 운영주체를 바꿔 전라북도(도지사)가 아닌 민간(사회)단체장 또는 언론사 대표 명의의 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설문하였다.

이에 대해 총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6.1%(1,662명)는 “현행법상 시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해도 전라북도지사 명의의 표창 지급이 좋다.”라고 응답함으로써 굳이 운영주체의 이전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 응답자의 33.2%(982명)는 “시상금 지급의 정도가 상의 대표성을 띠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상금 지급을 위해서 민간단체장(또는 민간단체 위원장)이나 언론사 대표 명의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시상금 지급을 위해 운영주체를 바꿔야 한다는 응답자들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주요한 견해를 나타냈다.

- ▶ 즉, 운영주체를 바꿔야 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46.5%(455명)는 전라북도애향운동본부와 같은 민간단체를 운영주체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 ▶ 37.1%(363명)는 별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회”와 같은 별도 독립 민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시상금 지급 방안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들이 운영주체를 바꿔 가면서까지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한다 할지라도, 시상금 지급을 통해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위상 정립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시상금 지급 방안 : 현행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주

- ▶ 현행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기존처럼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을 지급하며 대상 자체를 지속시키고자 한다면, 민간단체나 민간위원회(가칭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회”) 구성(기존 전북 애향운동본부도 가능)을 통해 운영주체를 완전히 바꾸어 진행해야 한다.
- ▶ 가칭 「자랑스런 전북인을 위한 재단」 등 민간단체나 위원회 구성을 통해 시상금 재원(기금) 조성을 하여 운영한다. 전라북도 등 관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주에서만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찬조하는 정도로 관여하고, 그 이상 관여하지 않는 것이 현행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상의 공정성이나 권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현행 공직선거법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전북도에서 주관하지 말고, 앞에서 예시한 가칭 「자랑스런 전북인을 위한 재단」의 설립이나 기존의 「전북애향운동본부」 같은 공익기관이 운영주체가 되어야 한다.
 - 그러한 민간단체나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 전라북도에서 행정적 도움을 주는 운영 방식을 택해야 한다.
 - 기존처럼 도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시상식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도지사 명의의 패와 메달이 아닌, 민간단체장(혹은 위원장) 명의의 패와 메달 및 시상금 지급만이 가능하다.
 - 시상금 조성이 재단 구성을 통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협찬을 통해 조성한다.
- ▶ 또한, 시상금 지급의 경우에는 시상분야를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5~6개 분야로 적정하게 줄여 시상금을 높이며, 대외적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 시상금을 전 시상분야에 지급하기보다 시상분야 중에서도 최고의 시상자에게만 타 분야 전문가들이 선정케 하여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1~2천만원 정도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하였을 때 시상이 갖게 될 위상은 자동적으로 증대되리라 본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상금 지급 방안 : 현행 선거법에 의해 금지

- ▶ 전라북도와 민간단체의 동시 운영을 통해 진행한다. 단, 도지사는 명예로운 표창장, 패 및 메달을 수여하며, 별도 민간단체(혹은 공익 기관)는 시상금을 지급한다? : 현행 선거법상 불법
- ▶ 도지사 명의의 패와 메달만으로 시상은 하되, 그에 상당한 상금은 도비에서 지출하는 것보다 향토기업이나 금융기관의 협찬을 얻어 도민 전체의 따뜻한 사랑이 담기도록 도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시상식을 하면 더욱 큰 효과를 창출한다? : 현행 선거법상 불법

제3절 전북 최고의 상으로써의 위상 정립 방안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에 대한 인지도와 관계없이 과반 이상의 다수의 응답자들은 전라북도 지사의 표창 자체가 무엇보다 의미 있는 시상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일회적인 조사를 통한 분석 결과로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도민의 호응을 받으며, 자랑스럽고, 명예스러운 대상으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 대상자(對象者) 선정, 선정 과정, 선정 방안, 시상 방법, 사전관리, 사후 관리 등 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선정과 관련한 사전·사후 관리 : 위상 정립의 선결 과제

□ 사전 관리 :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은 아주 명예로운 상이다.

- ▶ 전북 사회 풍토(혹은 전북인의 의식)를 돈보다 명예를 더 중하게 여기는 인식과 의식의 대전환이 사전에 전제되어야 한다.
 - 각계각층 모두가 보기에 명예로운 분을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가족과 주위에 돈보다 명예를 재산으로 물려줘야한다는 인식의 전환과 가치관이 도민에게 체화되는 계기를 형성케 해야 한다.
- ▶ 전북의 대상에 걸맞게 명예로운 사람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정치적 입김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이를 통해 상금보다도 명예를 존중하는 틀이 형성 되도록 전통을 수립해야 하며, 유럽의 기사작위와 같이 명예로운 상으로 발전해야 한다.
- ▶ 전북은 과거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 양반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되찾는 명예로운 전북으로 재탄생되기 위해 자랑스런 전북인 발굴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이 전제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 ▶ 시상의 대표성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수적이다. 홍보가 부족하면, 추천인·심사위원·수상자·수여자·관련 공무원 및 일부 언론을 통해 접한 사람 등 단지 일부의 잔치로 끝날 수 있다.
 - 범 전북인의 상이자 진정 가치있는 상으로 모두가 인정하고 관심을 보일 수 있게 보다 많은 홍보가 있어야 하며, 다른 지역의 상과 견주어 뒤떨어지지 않는 비중 있는 상이 되어야 한다.
- ▶ 시상이 전북인의 자긍심을 드높일 뿐만 아니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전북인의 단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도록 사전에 정교하고 치밀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사후 관리 : 위상의 정립 및 확산 방안

- ▶ 대상을 받은 수상자들의 활동내역 등의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도민 및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상의 위상을 유지하며, 공간적으로 도내·외는 물론이요, 해외에서조차도 타의 귀감을 사게 해야 한다.

- ▶ 시상 자체를 경제적 낙후로 인해 무기력에 빠질 수 있는 전북도민의 정신적 자부심과 자존을 재생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 ▶ 운영주체에 무관하게 방송·신문 등의 적극 후원을 통해 수상인들의 업적이 널리 알려지고, 도청에서도 전북인대상이 명실상부한 전북인의 대표상이 되도록 정치성 없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수상자들이 진정 지역에서 명예를 인정받을 수 있는 「명예의 전당」 운영 등을 통해 상의 진가를 인정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 ▶ 수상자들의 삶을 주제로 한 시군 순회강연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 작게는 수상자들이 각 분야에서 전북을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할 때 행정지원을 강화 내지 보장하고, 도정 명예자문 및 고문 위원 등으로 위촉함으로써 수상자 자신의 삶이 행복해 질 수 있는 기회를 도차원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2. 선정 기준

- ▶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구성을 통해 인지도, 학력 수준 및 연령 순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개인의 업적평가에서 수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 ▶ 분야별로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선정 기준의 계량화를 통한 객관성을 확보하여 도민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한다.
 - 즉,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단순히 언론에 자주 나온 인지도 등의 외형 요건만을 갖고서 자랑스런 전북인상 선정 심사의 척도로 삼아서는 안된다.
 -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엄격·공정한 선정 기준을 설정하며, 추천 조건을 강화하여 처음부터 상의 대표성을 확립해야 한다.
 - 각 분야별로 심사·평가 내용과 기준의 통일성이 필요하며, 수치화할 수 있는 경우는 정량지표를 설정하는 등 뚜렷하게 구분되는 성과를 선정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이하 <표 4-1> 참조)

<표 4-1> 선정 평가 기준표

접수번호		선정평가일자 : 2007. 00. 00		
평가 점수		선정평가위원	소속	(서명)
			성명	

선정평가항목	세부 평가 내용	배점	평가점수					
			A	B	C	D	E	F
도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규를 준수한 정도 ◆도덕적인 평가 정도 : 여론조사 추가 반영^{*1} 	10	A	B	C	D	E	F
			10	9	8	7	6	5
업적공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분야 공헌 정도 내지 업적의 효과 ◆경제발전/재정확충 기여 : 수출, 생산, 브랜드개발, 농수특산물 육성 실적 등 ◆노사 화합, 도민 화합, 가정 화합 기여도 ◆삶의 질 개선 ◆신 지식·정보의 창출 및 전달 	30	A	B	C	D	E	F
			30	27	24	21	18	15
행복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웃을 행복하게 한 정도 ◆전북을 민주복지사회로 이끈 기여도 	10	A	B	C	D	E	F
			10	9	8	7	6	5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분야 관련 귀속성 내지 전문성 	10	A	B	C	D	E	F
			10	9	8	7	6	5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상자에 대한 전북도민의 인지도^{*1} 	10	A	B	C	D	E	F
			10	9	8	7	6	5
수상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 표창 등 각종 수상 실적 	10	A	B	C	D	E	F
			10	9	8	7	6	5
애향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과의 연고성 및 유대 정도 ◆전북사랑 실천 정도 	10	A	B	C	D	E	F
			10	9	8	7	6	5
대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정도 ◆도민의 가치(혹은 정서)에의 부합성 	10	A	B	C	D	E	F
			10	9	8	7	6	5
합 계		100						

*1: 도민 여론 조사 방식을 통해 심사위원에게 제공

⇒ 특히, 이를 위한 도민 여론 조사는 전북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며, 향후 홈페이지의 유용성 제고 차원에서 회원 가입자 한에 참여(여론조사) 가능케 하며, 1회원에게 1참여만을 허용하는 여론 조사 장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실시

- ▶ <표 4-1>의 선정 평가 기준표의 적용은 본선 심사위원회에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
 - 그러나 1차(분야별 심사위원회)와 2차(본선 심사위원회)에서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위원들의 평가 결과에 대한 공정성 확보도 필요
- ▶ 수상 대상자의 현재 위치나 역할보다는 대상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경받을 만하며 자랑스러운 사람인가에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한다.
 - (예): 귀감이 되는 교육자로서 좋은 정책을 세워 도 교육에 많은 도움을 준 교육감과 학부모들로 부터 많은 칭찬과 존경을 받는 선생님을 비교할 때, 물론 교육감에게 상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크지만, 칭찬을 받은 선생님도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한다. 즉, 존경받는 사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시상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

3. 선정 대상

- ▶ 가장 정직한 방법으로 전라북도의 자랑스런 위인상을 만들 수 있게 전북은 물론이요, 국내외적으로 영광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선정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전북 출신 해외 거주자도 발굴하는 대상자 선정의 시야를 해외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 ▶ 이론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전북이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며 문화터전이 되어 21세기 문화전북을 다양하게 발전시켜 온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
 - 현세는 물론 후세들에게까지 희망을 주고 표상이 될 수 있는 훌륭한 분을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 ▶ 정치적 혹은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는 사람이 선정되어야 한다.
- ▶ 도내 출생자가 아닐지라도 전북을 고향으로 하여 살고 있는 사람, 나아가 전북발전에 큰 기여를 한 타 시·도민일지라도 모두를 시상 후보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4. 선정 과정: 선정과정에서부터 상의 위상을 제고

□ 선정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엄정한 공정성 확보

- ▶ 선정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한 올바른 심사에 의해 훌륭하고도 자랑스런 전복인을 선정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전라북도 외 인사에게도 명예자문위원(혹은 심사위원) 등으로 위촉하여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 이를 통해 나눠먹기식의 상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특히, 민주적 절차에 의한 민주적 선출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자랑스런 전복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상자와 운영위원회 위원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 ▶ 대상자 선정 시에는 반드시 사전 확인(현장 및 성과 확인)을 통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본으로 하여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 누가 보아도 시상자 선정과정 자체를 인정할 때 합리적 권위가 수립될 수 있다.
- ▶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업적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일단계로 심사위원 선정이나 심사과정에서부터 투명성, 공정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강화해야 한다.
- ▶ 또한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누가 심사위원인지를 알 수 없게 하는 심사위원선정에 대한 정보 유출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

□ 선정과정에 많은 사람의 참여 확립: 축제화 전단계 창출

- ▶ 대상 선정과정에 가능하면 많은 전복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필요하다. 따라서 추천위원회, 심사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전체위원들의 참여 속에 결정하는 방식 등 가능하면 선정과정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 신뢰성과 대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금이나 부상이 아닌 선정과정에 많은 도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 무엇보다도 전북을 대표하는 상이니 만큼 이 상을 시상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사람이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 ▶ 선정심의위원회의 참여위원들이 너무나 형식적인 전문가(단체 대표 보다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선정 방안

- ▶ 표면적인 유명인사 중심의 선발도 필요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훌륭한 전문인, 자랑스런 전북인의 발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상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각 분야에 전문가로 위원이 구성되어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 선정과정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 ▶ 누구나 추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선정 제도의 수월성을 확보해야 하며, 매년 관련 분야를 반드시 채우기식의 선발은 지양하고 요건에 충족되는 분만을 선정해야 한다.
- ▶ 수상 후보에 대한 인터넷 투표나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인터넷 투표(혹은 별도의 여론조사)를 통해 획득한 점수 반영은 일정점수(예를 들어 30% 반영)를 부여하고, 전문가의 의견(50%), 관계자 의견과 기타(20%) 등으로 배점을 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 이는 앞에서 제기한 “선정평가기준”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운영의 묘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 ▶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이 영예로운 상이 될 수 있는 사전 준비로 대상의 후보를 시민들의 추천으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시민위원들의 투표방식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 ▶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은 명실공히 전북을 상징하는 인물이기에 선정 시 명분과 실리, 공정성(혹은 공적)을 모두 세밀하게 조사하여 이에 타당한 인물이 선정 되도록 해야 한다.

- ▶ 그런데 공정하고 적합한 인물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정위원들이 진정으로 전북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선정위원의 구성은 민간인 위주로 만 구성되어서도 안되며, 사명감을 갖고 있는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에 의한 민·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6. 시상 방법

- ▶ 공직선거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도지사가 수여하는 명예로운 상으로 지속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사기진작을 위해 시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
- ▶ 다른 시상과 차별화된 점이 있어야 한다. 즉, 도민 전체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사전 사후 홍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 시상이 매년 실시하는 의례적인 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즉, 매년 시상하는 것은 자칫 상을 주기 위한 의례적인 시상이 될 수 있어, 2년 단위 혹은 적정 수상자가 없을 때는 건너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7. 별도의 핵심 정책제언

- ▶ 「전북을 빛낸 자랑스런 전북인 100인」 선정 발표
 -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 수여와 같은 패와 메달 및 시상금 지급과는 별도로 각계각층에서 전북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매년 연령과 관계없이 해마다 「전북을 빛낸 자랑스런 전북인 100인」 이름으로 선정하여 발표하는 행사를 전북도민의 날에 실시한다.
- ▶ 타 시도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벤치마킹
 - 향후 타 지역 사례를 별도로 확인하여 타 시도의 장점을 검토하고, 원용할 수 있는 점은 활용하여야 한다.

〔 부 록 1 〕

전북발전연구원

ARS여론조사 결과

I.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전북도민들의 생각과 의식을 살펴보기 위한 것임

II. 조사의 설계

- 조사대상 : 20대 이상 전북도민
- 조사방법 : ARS 전화여론조사
- 표본크기 : 2,093세대(마지막응답기준)
- 조사일자 : 2007년 03월 20일 ~ 21일
- 조사기관 : (주) 오픈엑세스

III. 주요조사 항목

-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 관련 설문지에 준함

IV. 표본의 특성

[시군별]

구 분	빈 도	퍼센트
고창군	89	4.3
군산시	254	12.1
김제시	139	6.6
남원시	123	5.9
무주군	25	1.2
부안군	102	4.9
순창군	52	2.5
완주군	123	5.9
익산시	290	13.9
임실군	48	2.3
장수군	24	1.1
전주시	630	30.1
정읍시	138	6.6
진안군	56	2.7
합 계	2093	100.0

[성별]

구 분	빈 도	퍼센트
남 성	1240	59.2
여 성	853	40.8
합 계	2093	100.0

[연령별]

구 분	빈 도	퍼센트
20대	76	3.6
30대	167	8.0
40대	289	13.8
50대	478	22.8
60대 이상	1083	51.7
합 계	2093	100.0

[직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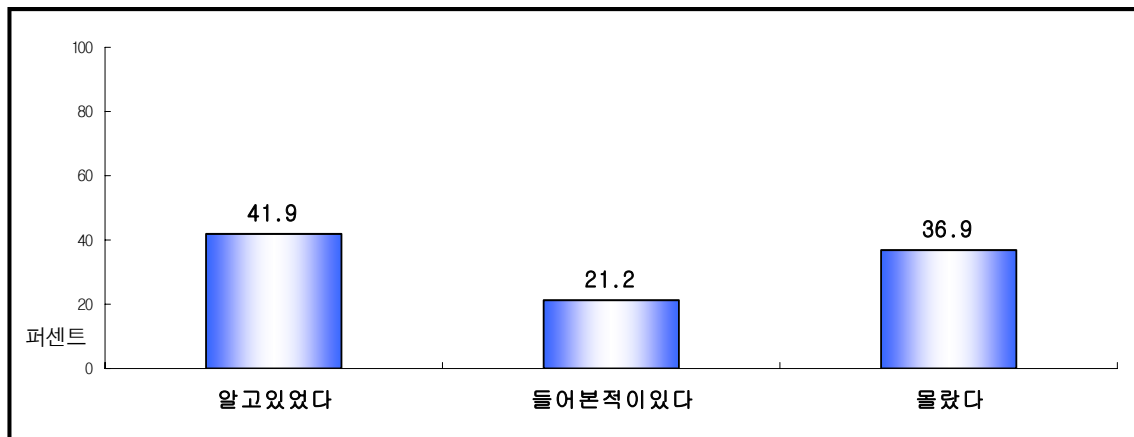
구 분	빈 도	퍼센트
학 술	120	5.7
문화.예술.체육	138	6.6
경제.상공	211	10.1
농림.축산.수산	612	29.2
언 론	29	1.4
전업주부	500	23.9
학 생	33	1.6
기 타	450	21.5
합 계	2093	100.0

IV. 기본 빈도 분석

1. 상 인지여부

귀하께서는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이라는 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 알고 있었다 2) 들어본 적이 있다 3) 몰랐다



구 분	빈 도	퍼센트
알고있었다	878	41.9
들어본 적이 있다	443	21.2
몰랐다	772	36.9
합 계	2093	100.0

[성별]

구 분	알고 있었다	들어본 적이 있다	몰랐다
남 성	44.3%	20.0%	35.7%
여 성	38.6%	22.9%	38.6%

[연령별]

구 분	알고있었다	들어본적있다	몰랐다
20대	27.6%	32.9%	39.5%
30대	46.1%	31.1%	22.8%
40대	51.6%	20.4%	28.0%
50대	44.4%	21.3%	34.3%
60대이상	38.7%	18.9%	42.4%

[동별]

구 분	알고있었다	들어본적있다	몰랐다
고창군	37.1%	19.1%	43.8%
군산시	39.8%	21.3%	39.0%
김제시	36.0%	17.3%	46.8%
남원시	36.6%	26.0%	37.4%
무주군	16.0%	20.0%	64.0%
부안군	37.3%	12.7%	50.0%
순창군	40.4%	25.0%	34.6%
완주군	35.0%	18.7%	46.3%
익산시	43.4%	23.4%	33.1%
임실군	33.3%	20.8%	45.8%
장수군	33.3%	25.0%	41.7%
전주시	51.4%	21.3%	27.3%
정읍시	33.3%	26.1%	40.6%
진안군	41.1%	14.3%	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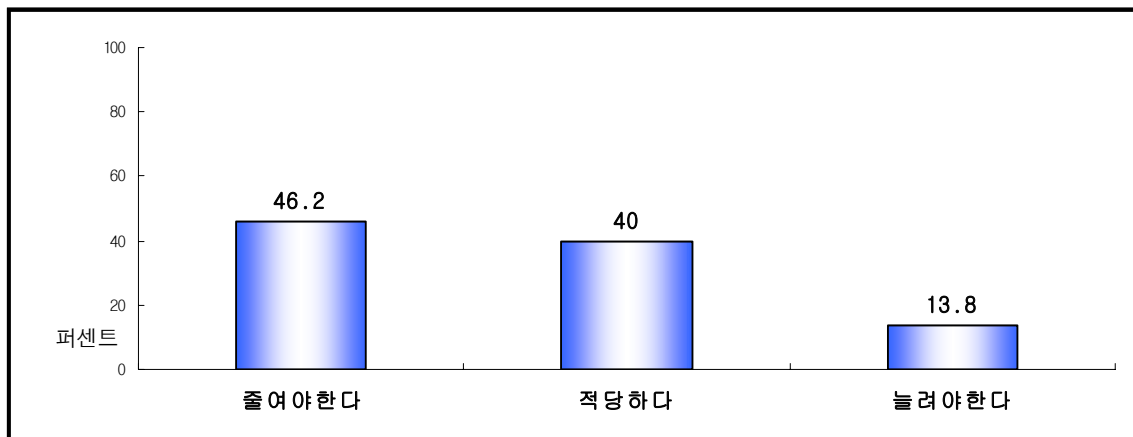
[직업별]

구 분	알고있었다	들어본적있다	몰랐다
학 술	51.7%	17.5%	30.8%
문화.예술.체육	55.1%	22.5%	22.5%
경제.상공	57.8%	16.1%	26.1%
농림.축산.수산	35.3%	20.3%	44.4%
언 론	34.5%	20.7%	44.8%
전업주부	35.8%	25.2%	39.0%
학 생	39.4%	27.3%	33.3%
기 타	44.4%	20.4%	35.1%

2. 시상분야 축소/확대에 대한 견해

현재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은 경제,문화예술,학술,상공업,농림수산,공익,체육,효행,근로,언론 총 10개 분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는데, 향후 시상분야를 줄이거나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줄일 필요가 있다
- 2) 지금 정도가 적당하다
- 3) 더 많은 분야로 늘리는 것이 좋겠다



구 분	빈 도	퍼센트
줄여야한다	966	46.2
적당하다	838	40.0
늘려야한다	289	13.8
합 계	2093	100.0

[성별]

구 분	줄여야한다	적당하다	늘려야한다
남 성	50.2%	37.3%	12.4%
여 성	40.2%	44.0%	15.8%

[연령별]

구 분	줄여야한다	적당하다	늘려야한다
20대	26.3%	55.3%	18.4%
30대	47.9%	44.9%	7.2%
40대	46.4%	38.4%	15.2%
50대	52.1%	36.2%	11.7%
60대이상	44.6%	40.4%	15.1%

[동별]

구 분	줄여야한다	적당하다	늘려야한다
고창군	42.7%	46.1%	11.2%
군산시	47.6%	37.4%	15.0%
김제시	45.3%	41.7%	12.9%
남원시	39.8%	39.0%	21.1%
무주군	40.0%	52.0%	8.0%
부안군	44.1%	39.2%	16.7%
순창군	51.9%	44.2%	3.8%
완주군	43.9%	40.7%	15.4%
익산시	49.3%	35.9%	14.8%
임실군	47.9%	33.3%	18.8%
장수군	33.3%	58.3%	8.3%
전주시	48.9%	41.0%	10.2%
정읍시	35.5%	40.6%	23.9%
진안군	50.0%	39.3%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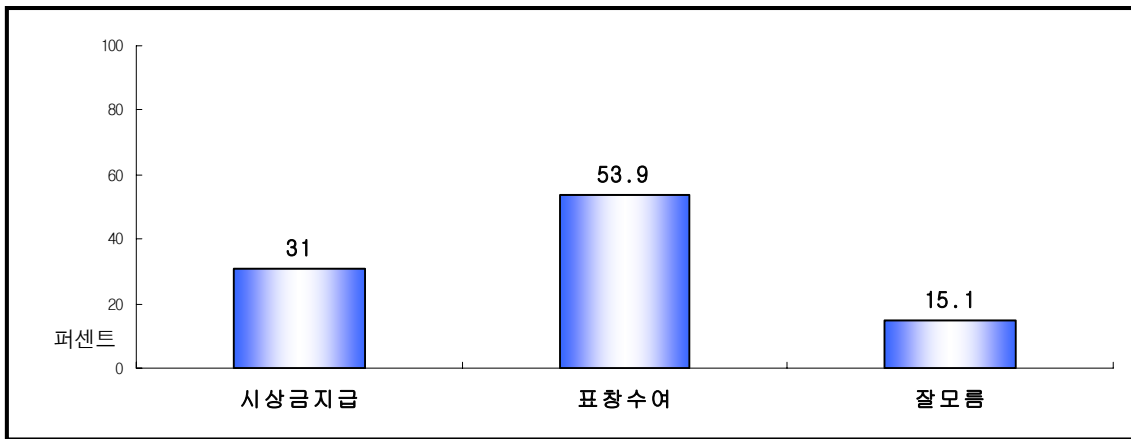
[직업별]

구 분	줄여야한다	적당하다	늘려야한다
학 술	47.5%	50.0%	2.5%
문화.예술.체육	53.6%	37.7%	8.7%
경제.상공	56.4%	33.6%	10.0%
농림.축산.수산	46.2%	38.1%	15.7%
언 론	51.7%	37.9%	10.3%
전업주부	41.8%	42.0%	16.2%
학 생	30.3%	45.5%	24.2%
기 타	44.2%	41.3%	14.4%

3. 시상금 관련

그동안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시상은 조례에 의하여 전라북도에서 운영하였으며, 도지사 명의의 상패와 메달 및 50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되어 왔는데,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시상금 지급이 금지되어, 상패와 메달만 수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지급하려면, 운영주체를 도지사 명의로 아닌 민간사회단체장 또는 언론사 대표로 바꿔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운영주체를 바꿔서라도 시상금 지급이 필요하다
- 2) 시상금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도지사 명의의 표창 지급이 좋다
- 3) 잘 모르겠다



구분	빈도	퍼센트
시상금지급	648	31.0
표창수여	1129	53.9
잘모름	316	15.1
합계	2093	100.0

[성별]

구 분	시상금지급	표창수여	잘모름
남 성	35.3%	52.3%	12.3%
여 성	24.6%	56.3%	19.1%

[연령별]

구 분	시상금지급	표창수여	잘모름
20대	34.2%	56.6%	9.2%
30대	29.9%	60.5%	9.6%
40대	31.5%	58.8%	9.7%
50대	32.0%	54.4%	13.6%
60대 이상	30.3%	51.2%	18.5%

[동별]

구 분	시상금지급	표창수여	잘모름
고창군	29.2%	55.1%	15.7%
군산시	29.9%	54.7%	15.4%
김제시	25.2%	56.8%	18.0%
남원시	34.1%	52.0%	13.8%
무주군	44.0%	40.0%	16.0%
부안군	31.4%	53.9%	14.7%
순창군	36.5%	48.1%	15.4%
완주군	32.5%	43.1%	24.4%
익산시	31.4%	51.4%	17.2%
임실군	39.6%	37.5%	22.9%
장수군	29.2%	45.8%	25.0%
전주시	27.9%	62.1%	10.0%
정읍시	34.8%	47.1%	18.1%
진안군	46.4%	37.5%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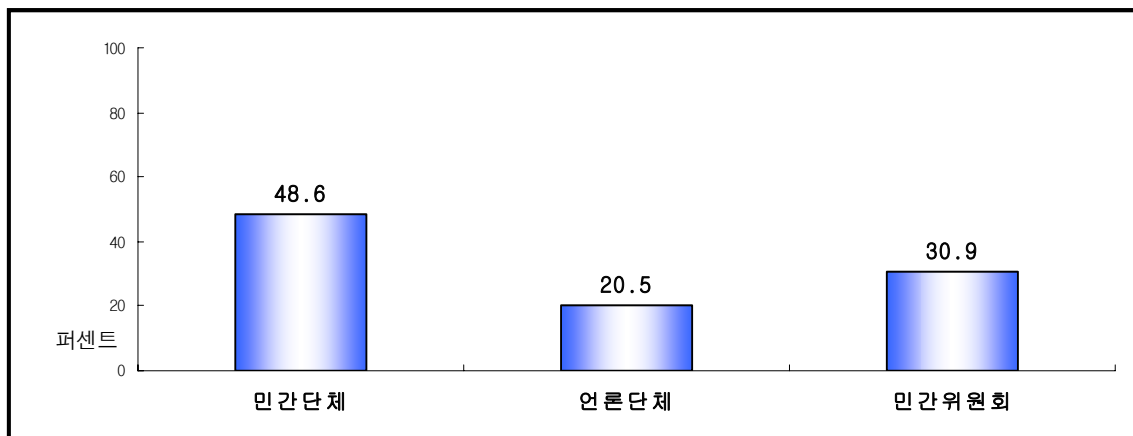
[직업별]

구 분	시상금지급	표창수여	잘모름
학 술	38.3%	58.3%	3.3%
문화.예술.체육	38.4%	54.3%	7.2%
경제.상공	37.9%	55.5%	6.6%
농림.축산.수산	35.8%	50.5%	13.7%
언 론	24.1%	48.3%	27.6%
전업주부	20.8%	54.8%	24.4%
학 생	36.4%	45.5%	18.2%
기 타	28.2%	56.7%	15.1%

4. 운영주체 (시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을 대상)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의 운영주체는 어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라북도 예향운동본부와 같은 민간단체
- 2) 지역 신문사나 TV방송사와 같은 언론단체
- 3)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 운영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민간위원회



구 분	빈 도	퍼센트
민간단체	315	48.6
언론단체	133	20.5
민간위원회	200	30.9
합 계	648	100.0

[성별]

구 분	민간단체	언론단체	민간위원회
남 성	54.3%	19.4%	26.3%
여 성	36.7%	22.9%	40.5%

[연령별]

구 분	민간단체	언론단체	민간위원회
20대	19.2%	38.5%	42.3%
30대	24.0%	24.0%	52.0%
40대	40.7%	26.4%	33.0%
50대	41.2%	28.8%	30.1%
60대 이상	60.4%	13.1%	26.5%

[동별]

구 분	민간단체	언론단체	민간위원회
고창군	57.7%	26.9%	15.4%
군산시	50.0%	19.7%	30.3%
김제시	31.4%	14.3%	54.3%
남원시	61.9%	11.9%	26.2%
무주군	54.5%	18.2%	27.3%
부안군	50.0%	21.9%	28.1%
순창군	42.1%	5.3%	52.6%
완주군	47.5%	27.5%	25.0%
익산시	46.2%	19.8%	34.1%
임실군	42.1%	15.8%	42.1%
장수군	85.7%		14.3%
전주시	49.4%	24.4%	26.1%
정읍시	52.1%	18.8%	29.2%
진안군	30.8%	26.9%	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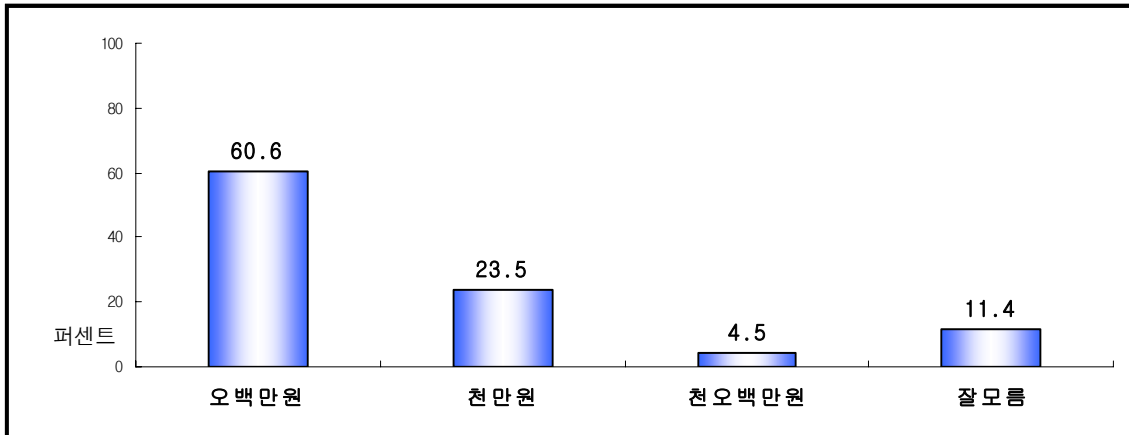
[직업별]

구 분	민간단체	언론단체	민간위원회
학 술	69.6%	17.4%	13.0%
문화.예술.체육	43.4%	24.5%	32.1%
경제.상공	52.5%	16.3%	31.3%
농림.축산.수산	49.8%	19.6%	30.6%
언 론	14.3%	14.3%	71.4%
전업주부	33.7%	26.0%	40.4%
학 생	25.0%	25.0%	50.0%
기 타	55.1%	19.7%	25.2%

5. 시상금의 규모(시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을 대상)

시상금의 규모는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기존 지급금 500만원 2) 1000만원 정도
- 3) 1500만원 정도 4) 잘 모르겠다



구분	빈도	퍼센트
오백만원	393	60.6
천만원	152	23.5
천오백만원	29	4.5
잘모름	74	11.4
합계	648	100.0

[성별]

구분	오백만원	천만원	천오백만원	잘모름
남성	62.3%	26.7%	4.1%	6.8%
여성	57.1%	16.7%	5.2%	21.0%

[연령별]

구 분	오백만원	천만원	천오백만원	잘모름
20대	61.5%	3.8%	15.4%	19.2%
30대	50.0%	24.0%	10.0%	16.0%
40대	63.7%	25.3%	5.5%	5.5%
50대	66.0%	22.9%	2.0%	9.2%
60대이상	58.8%	24.7%	3.7%	12.8%

[동별]

구 분	오백만원	천만원	천오백만원	잘모름
고창군	53.8%	30.8%		15.4%
군산시	64.5%	13.2%	7.9%	14.5%
김제시	57.1%	25.7%		17.1%
남원시	69.0%	21.4%	2.4%	7.1%
무주군	54.5%	27.3%		18.2%
부안군	46.9%	34.4%	3.1%	15.6%
순창군	63.2%	26.3%	5.3%	5.3%
완주군	60.0%	20.0%	10.0%	10.0%
익산시	64.8%	23.1%	1.1%	11.0%
임실군	68.4%	10.5%	5.3%	15.8%
장수군	71.4%	28.6%		
전주시	56.8%	26.1%	6.3%	10.8%
정읍시	66.7%	20.8%	4.2%	8.3%
진안군	57.7%	30.8%	3.8%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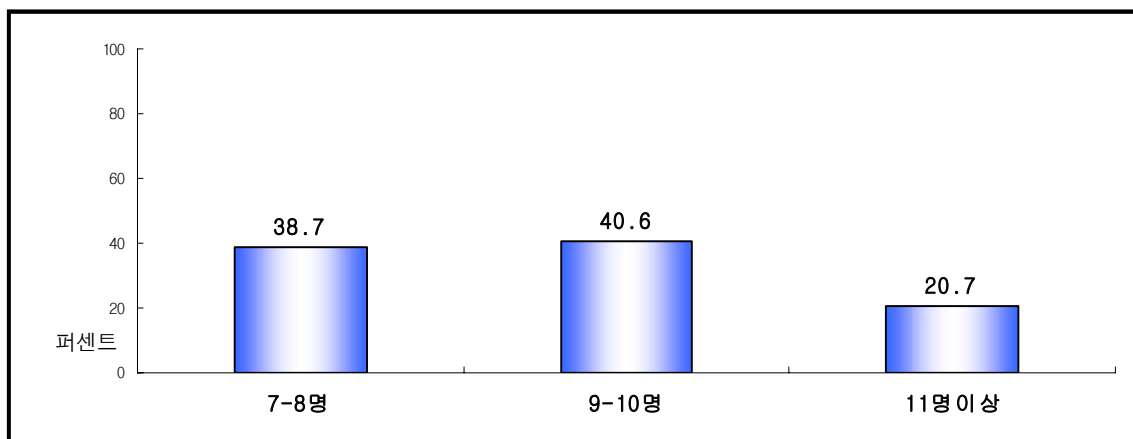
[직업별]

구 분	오백만원	천만원	천오백만원
학 술	67.4%	23.9%	2.2%
문화.예술.체육	52.8%	34.0%	5.7%
경제.상공	51.3%	32.5%	10.0%
농림.축산.수산	63.0%	23.3%	2.3%
언 론	57.1%	28.6%	14.3%
전업주부	61.5%	15.4%	2.9%
학 생	83.3%		8.3%
기 타	60.6%	22.0%	5.5%

6. 운영위원의 수

만약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의 운영주체로 (가칭)“자랑스런 전북인 대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운영위원의 수는 몇 명 정도가 적당하고 생각하십니까?

- 1) 7 ~ 8명 정도 2) 9 ~ 10명 정도 3) 11명 이상



구 분	빈 도	퍼센트
7-8명	809	38.7
9-10명	850	40.6
11명이상	434	20.7
합 계	2093	100.0

[성별]

구 분	7-8명	9-10명	11명이상
남 성	35.5%	42.7%	21.9%
여 성	43.3%	37.6%	19.1%

[연령별]

구 분	7-8명	9-10명	11명이상
20대	25.0%	43.4%	31.6%
30대	44.3%	37.1%	18.6%
40대	41.2%	38.4%	20.4%
50대	39.3%	41.0%	19.7%
60대이상	37.8%	41.4%	20.9%

[동별]

구 분	7-8명	9-10명	11명이상
고창군	28.1%	51.7%	20.2%
군산시	44.1%	37.0%	18.9%
김제시	37.4%	46.8%	15.8%
남원시	34.1%	40.7%	25.2%
무주군	28.0%	48.0%	24.0%
부안군	33.3%	41.2%	25.5%
순창군	42.3%	42.3%	15.4%
완주군	32.5%	44.7%	22.8%
익산시	40.0%	41.0%	19.0%
임실군	41.7%	35.4%	22.9%
장수군	20.8%	50.0%	29.2%
전주시	41.6%	37.8%	20.6%
정읍시	39.1%	39.9%	21.0%
진안군	32.1%	41.1%	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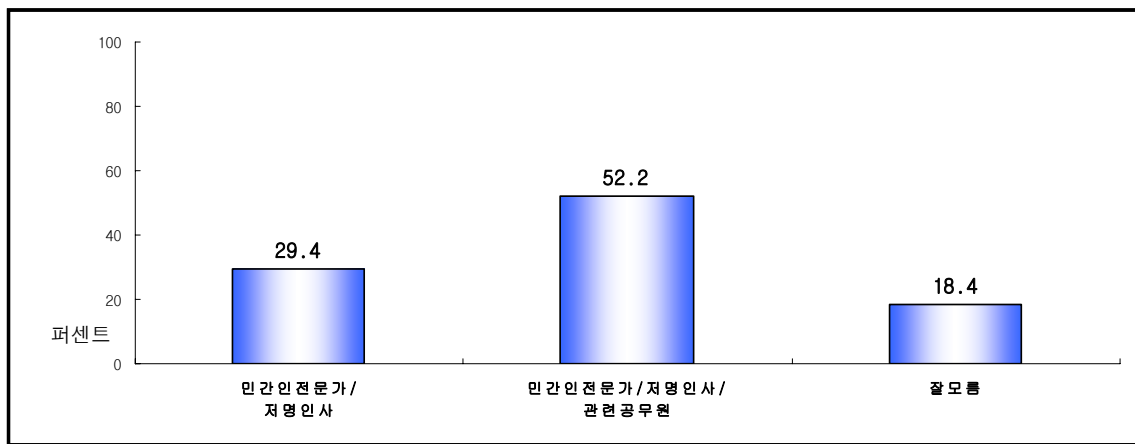
[직업별]

구 분	7-8명	9-10명	11명이상
학 술	45.0%	31.7%	23.3%
문화.예술.체육	38.4%	37.7%	23.9%
경제.상공	33.6%	44.1%	22.3%
농림.축산.수산	37.7%	42.6%	19.6%
언 론	37.9%	48.3%	13.8%
전업주부	45.2%	37.0%	17.8%
학 생	30.3%	45.5%	24.2%
기 타	34.0%	42.7%	23.3%

7. 운영위원의 구성

(가칭)“자랑스런 전북인 대상 운영위원회”위원구성은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시장분야별로 1명씩, 학계포함 민간인 전문가나 저명인사로만 구성
- 2) 학계포함 민간인 전문가나 저명인사와 아울러 관련부서 공무원까지 함께 참여
- 3) 잘 모르겠다



구분	빈도	퍼센트
민간인전문가/저명인사	616	29.4
민간인전문가/저명인사/ 관련공무원	1092	52.2
잘모름	385	18.4
합계	2093	100.0

[성별]

구분	민간인전문가/ 저명인사	민간인전문가/ 저명인사/관련공무원	잘모름
남성	31.3%	54.8%	13.9%
여성	26.7%	48.3%	25.0%

[연령별]

구 분	민간인전문가/ 저명인사	민간인전문가/ 저명인사/관련공무원	잘모름
20대	23.7%	57.9%	18.4%
30대	35.3%	51.5%	13.2%
40대	29.1%	53.3%	17.6%
50대	29.7%	54.2%	16.1%
60대이상	28.9%	50.7%	20.4%

[동별]

구 분	민간인전문가/ 저명인사	민간인전문가/ 저명인사/관련공무원	잘모름
고창군	29.2%	57.3%	13.5%
군산시	31.1%	47.2%	21.7%
김제시	20.9%	54.0%	25.2%
남원시	29.3%	53.7%	17.1%
무주군	24.0%	60.0%	16.0%
부안군	38.2%	48.0%	13.7%
순창군	30.8%	61.5%	7.7%
완주군	20.3%	52.0%	27.6%
익산시	26.9%	53.4%	19.7%
임실군	29.2%	52.1%	18.8%
장수군	29.2%	45.8%	25.0%
전주시	31.9%	53.7%	14.4%
정읍시	28.3%	49.3%	22.5%
진안군	37.5%	41.1%	21.4%

[직업별]

구 분	민간인전문가/ 저명인사	민간인전문가/ 저명인사/관련공무원	잘모름
학 술	41.7%	51.7%	6.7%
문화.예술.체육	36.2%	55.1%	8.7%
경제.상공	37.0%	53.6%	9.5%
농림.축산.수산	27.6%	55.9%	16.5%
언 론	24.1%	55.2%	20.7%
전업주부	25.2%	45.4%	29.4%
학 생	27.3%	54.5%	18.2%
기 타	28.2%	52.9%	18.9%

[부 록 2]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여론조사

안녕하십니까? 전북발전연구원에서는 전라북도의 의뢰를 받아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의 일환으로 귀하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성심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하가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고견과 판단을 가감없이 제시해 주시면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귀하의 응답에 보답하겠습니다.

본 조사의 분석 내용은 종합 통계 처리되어 순수한 정책입안 자료로만 사용되며, 특히 통계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통계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2007년 3월 일



문의 : 연구책임 안완기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서편청사 2층 전북발전연구원

전화 : 063)286-9222/ 팩스: 063)286-9206/

E-mail add. : okpeace@jd.re.kr

※응답은 해당 되는 번호 앞 ___ 위에 √로 표시해 주시거나 () 안에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 응답 문항에 대한 의견 첨부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총 8개의 문항입니다.>

1. 귀하의 직업 분야는 무엇입니까

___ ① 교육계(초·중·고 등) ___ ② 문화·예술계 ___ ③ 경제계(상공업 분야 포함)

___ ④ 체육계 ___ ⑤ 농림축수산업계 ___ ⑥ 언론계

___ ⑦ 법조·정치계 ___ ⑧ 일반 공무원 ___ ⑨ 회사원(근로자 포함)

___ ⑩ 시민단체(NGO) ___ ⑪ 전업주부 ___ ⑫ 학생

___ ⑬ 기타 ()

2. 귀하는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 시상 사실을 본 설문조사 이전에도 알고 계셨습니까? ()

___ ① 알고 있었다. ___ ② 들어본 적이 있다. ___ ③ 몰랐다.

2-1. (문제 2의 ①과 ②에 응답하신 분만) 귀하는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이 명실상부하게 전북을 대표하는 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그렇게 생각한다. ___ ② 아니다.

3. 현재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은 10개분야(경제, 문화예술, 학술, 상공업, 농림수산, 공익, 체육, 호열, 근로, 언론)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향후 시상분야의 축소나 증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_____ ① 너무 세분화 되어 있어 분야를 줄일 필요가 있다.
- _____ ② 여러 분야에서 전북의 위상을 높이고 있어 적당한 시상이다.
- _____ ③ 더 많은 분야를 선정하여 수상하여야 한다.

3-1. (문제 3의 ①과 ③에 응답하신 분만) 몇 개 분야로 축소하거나 증가하여 시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분야만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 ()개 분야

그 동안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 조례”에 의하여 전라북도에서 운영하였으며, 전북 도지사 명의의 상패와 메달 및 50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시상금 지급이 금지되어 전북 도지사 명의의 상패와 메달만 수여하였습니다.

4. 현행법상 시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의 운영주체가 전라북도가 아닌 민간단체(또는 민간위원회)나 언론사 등이 운영주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시상금 지급을 위해 운영주체를 바꿔 도지사 명의를 아닌 민간(사회)단체장 또는 언론사 대표 명의의 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_____ ① 시상금 지급의 정도가 상의 대표성을 띠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상금 지급을 위해서 언론사 대표나 민간단체장(또는 위원장) 명의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_____ ② 현행법상 시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해도 전라북도지사 명의의 표창 지급이 좋다.

4-1. **(문제 4의 ①에 응답하신 분만)** 그렇다면,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의 운영주체는 어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민간단체 (예 : 전라북도애향운동본부) ___ ② 언론사

___ ③ 별도 독립 민간 위원회 구성 운영(예 :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회)

___ ④ 기타 ()

4-2. **(문제 4의 ①에 응답하신 분만)** 그렇다면, 어떠한 언론매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지역 신문사 ___ ② 지역 TV방송사 ___ ③ 기타 ()

5. 향후 시상금을 지급할 경우 시상금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현행 이전대로 500만원 ___ ② 1,000만원 ___ ③ 1,500만원 ___ ④ 기타 ()

6.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의 운영주체로 “(가칭)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운영위원의 수는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7~8명 ___ ② 9~10명 ___ ③ 11~12명 ___ ④ 기타 (명)

〔 부 록 3 〕

●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조례 [제정 1996. 8. 29 조례제2439호]

개정 1997. 11. 21	조례제2519호	2000. 9. 22	조례제2775호
2003. 1. 3	조례제2901호	2004. 5. 14	조례제3016호
2004. 11. 12	조례제3060호	2005. 12. 30	조례제3153호
2006. 10. 13	조례제322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모범 전라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찾아서 도민의 이름으로 시상하기 위한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이하 “전북인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9. 22>

제2조(수상분야) 전북인대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제대상 <개정 2006. 10. 13, 신설 2006. 10. 13>
2. 문화·예술대상 <개정 2006. 10. 13>
3. 학술대상 <개정 2005. 12. 30>
4. 상공업대상 <개정 2006. 10. 13>
5. 농림수산대상 <개정 2006. 10. 13>
6. 공익대상 <개정 2006. 10. 13>
7. 체육대상 <개정 2006. 10. 13>
8. 효열대상 <개정 2006. 10. 13>
9. 근로대상 <신설 1997. 11. 21, 개정 2006. 10. 13>
10. 언론대상 <신설 2005. 12. 30, 개정 2006. 10. 13>

제3조(수상자격) 전북인대상 후보자는 후보자 추천일을 기준으로 전라북도내(이하 “도내”라 한다)에 5년이상 거주하거나, 본적 또는 원적이 전북인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경제대상은 일자리창출과 첨단산업 및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한 자 <개정 2006. 10. 13, 신설 2006. 10. 13>
2. 문화·예술대상은 문학·미술·음악·연극·연예분야 등에서 활발한 연구 창작 발표 등으로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한 자 <개정 2006. 10. 13>
3. 학술대상은 학술·교육 분야에서 향토발전에 기여한 자 <개정 2005. 12. 30, 2006. 10. 13>

4. 상공업대상은 생산성을 높이고 신기술개발·수출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 <개정 2006. 10. 13>
5. 농림수산업대상은 농업·축산·수산·임업분야에서 농림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개정 2006. 10. 13>
6. 공익대상은 공공사업·자선사업·기타 봉사활동을 통하여 전복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향토를 위해 헌신적인 공적을 쌓은 자 <개정 2006. 10. 13>
7. 체육대상은 도민 체위향상에 기여하였거나 체육인으로서 전북체육의 명예를 빛나게 한 자 <개정 2006. 10. 13>
8. 효열대상은 경노효친사상이 투철하고 미풍양속을 실천함으로써 주민의 칭송을 받는 효자·효부·열녀 <개정 2006. 10. 13>
9. 근로대상은 사업장·기업체 등에 종사하면서 자기 직무에 정려하여 생산성 향상 또는 근로환경개선에 기여하여 공적을 쌓은 자 [신설 1997. 11. 21] <개정 2006. 10. 13>
10. 언론대상은 언론분야에서 향토발전에 기여한 자 <신설 2005. 12. 30, 개정 2006. 10. 13>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등) ①도민은 누구나 전복인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도내 각 기관·단체·기업체장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추천자 자신을 추천할 수 없다.

②전복인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12>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및 증빙서류
3. 삭 제<2000. 9. 22>

③제2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①전복인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분야별 심사위원회와 본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 10. 13>

②분야별 심사위원회는 전복인대상 후보자를 예비심사하고, 본심사위원회에서는 분야별심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추천된 후보자중에서 수상자를 최종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06. 10. 13>

③분야별 심사위원회는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해분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 9. 22, 2006. 10. 13>

④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수상후보자와 관련있는 인사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하고, 본 심사위원과 분야별 심사위원은 겸할 수 없다.<개정 2006. 10. 13>

제6조(회의)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수상자 결정) ①수상자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분야별 심사위원회에서는 2인 이상을 추천한다. 다만, 수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1인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 13>

③본심사위원회에서는 각 분야별로 1인씩을 결정한다. 다만,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 13>

제8조(상패 등) ①수상자에게는 “별표 1”의 상패와 “별표 2”의 메달을 수여한다.

②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줄 수 있다.

제9조(중복 및 재수여 금지) 동일인 또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 및 재수여하지 아니 한다.

제10조(시상시기) 전복인대상은 매년 “전라북도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전복인대상 수령은 본인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받을 수 있다.

제12조(기록보존) 전복인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공적내용·수상내역 등의 기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실비변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라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조례) 전라북도애향도민의장조례(조례 제1196호 1981년 10월 8일)와 전라북도문화상조례(조례 제441호 1970년 12월 17일)는 이를 폐지한다.
- ③(경과조치) 전라북도애향도민의장조례 및 전라북도문화상조례에 의하여 시상한 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상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7.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4. 11. 1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5. 12. 3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6. 10. 13 조례3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개정 2000. 9. 22, 2006. 10. 13>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대상

성 명 :

생년월일 :

귀하께서는 위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향토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패를 드립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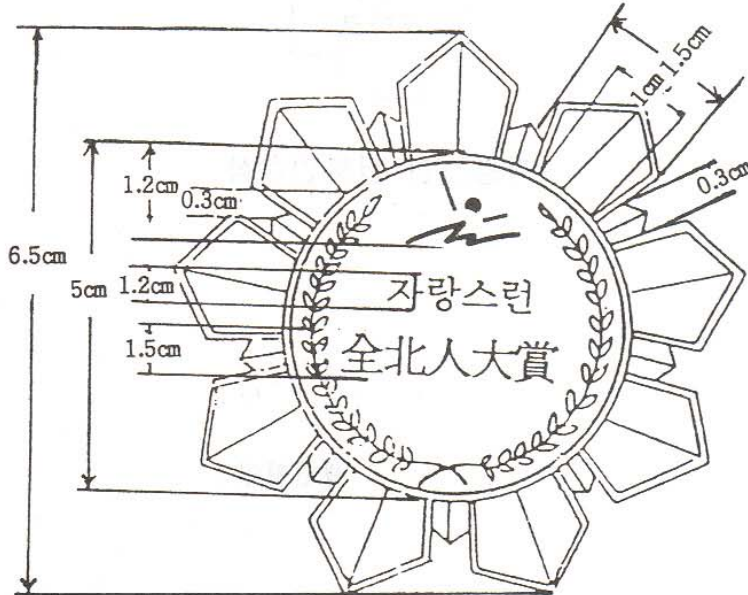
전라북도지사 ○○○ (직인)

이패를 자랑스런전북인대상대상장 제○○호로 등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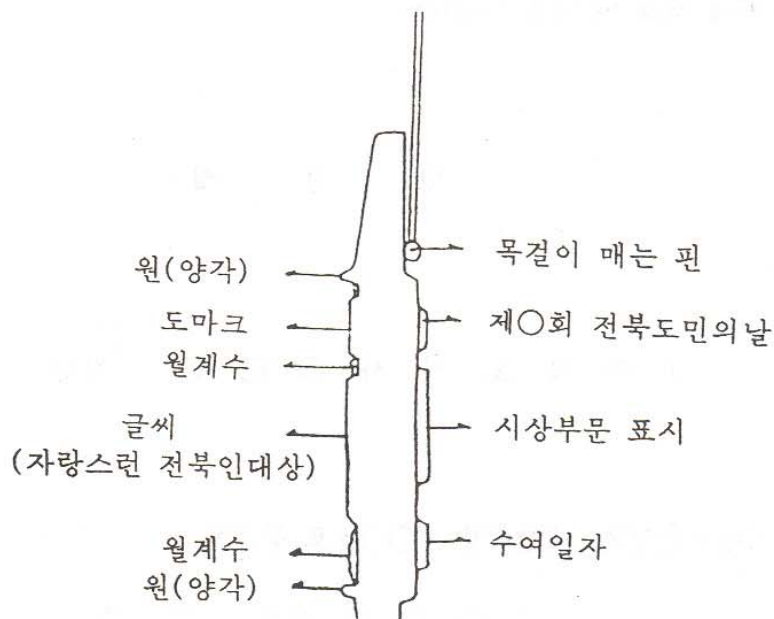
기획관리실장 ○○○ (인)

[별표 2] <전문개정 2000. 9. 22>

<전 면 도>



<측 면 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추천서

- 수상후보분야 :
- 수상후보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상기인을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후보자로 추천하며 공적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주 소 :
기관 · 단체명 :
직 위 :
연 락 처 :
성 명 :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후보자 공적조서

(전 면)

성명	(한자:)	성별	주민등록번호								-
본적(원적)	도	시	동	통	번	지	사 진 (명함판) ※ 1매 첨부				
주소	군	읍면	리								
직업		근무처		직	위						
수상후보분야											
주요경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과거포상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공적요지											

공 적 내 용

[별지 제3호서식]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수상자 관리대장

호수		수상년월일		수상분야		
본적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근무처		직위		
주요경력						
년월일	내용		년월일	내용		
과거포상기록						
년월일	내용		년월일	내용		
【공적요지】						